

# 제84회 전북사학 학술연구발표회

- 주 관 : 전북사학회
- 주 최 : 전북사학회
- 발표일시 : 2022년 4월 2일(토) 오후 2시~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2022. 04. 02.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 제84회 전북사학 학술연구발표회

- 주 관 : 전북사학회
- 주 최 : 전북사학회
- 발표일시 : 2022년 4월 2일(토) 오후 2시~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https://zoom.us/j/97229845751?pwd=dWZKTjRGL0JNd3V5dEh1dUhWZHhBdz09>

회의 ID: 972 2984 5751

암호: 1234

- 발표순서

사회 : 이정욱(전주대학교)

- 주제 1. 삼국시대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 연구 -고분유적을 중심으로-
  - 발표 : 안정수, 전주대학교
  - 토론 : 전상학,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주제 2. 1930년대 초반 학생운동가에서 사회주의자로의 성장과정 -경성트로이카 학생부를 중심으로-
  - 발표 : 김지수, 전북대학교
  - 토론 : 오대록, 독립기념관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 ※ 공지사항

회원분들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가 변경되신 분은 전북사학회 메일 ([jha-mail@naver.com](mailto:jha-mail@naver.com))로 연락해 주셔야 학회의 다양한 소식과 학회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 연구

-고분유적을 중심으로-

안정수 / 전주대학교

# 삼국시대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 연구\*

## -고분유적을 중심으로-

안정수\*\*

---

### I. 머리말

### II. 문헌을 통해 본 기문

### III. 고분을 통해 본 축조집단

### IV.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

### V. 맺음말

---

## I. 머리말

### 1.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전북 동부지역은 마한·백제 유역으로 인식되었으나 1974년 임실 금성리고분군<sup>1)</sup>과 남원 월산리고분군<sup>2)</sup>을 시작으로 최근에 조사된 청계리 고분군<sup>3)</su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야 고분이 발굴조사 되어 이 지역의 가야계 정치세력의 존재가 더욱 명확해졌다. 전북 동부지역 정치세력의 연구는 ‘반파(伴跛)’와 ‘기문(己汶)’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파(伴跛)에 관한 연구는 일본 사학자 이마나시 류(今西龍)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주로 성주<sup>4)</sup>와 남원<sup>5)</sup>으로 비정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연구성과의 축적을 통해 반파를 고령<sup>6)</sup>과 장수<sup>7)</sup>로 비정하였다. 특히 장수지

---

\* 본 발표문은 <안정수, 「삼국시대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2022.>의 내용 일부를 요약·수정 하였음.

\*\* 전주대학교 사학과 석사

1) 전영래, 「임실 금성리석곽묘군」, 『전북유적조사보고3』, 전라북도박물관, 1974.

2) 전영래, 『南原 月山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4) 백승욱, 『전북 가야의 역사적 뿌리를 복원하기 위한 전북지역 고대 정치세력과 가야 학술대회』, 전북사학회, 2019; 이형기, 「4~5세기 大加耶의 발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위가야 역, 「기문반파고 - 이마나시 류(今西龍), ‘기문반파고(己汶伴跛考)’」, 『사림(史林)』 제7권 제4호, 1922-」, 『인문학연구』 32, 2016.

5) 전영래. 앞의 책.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6)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한국사연구』 117, 2002; 『사국시대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김세기,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2003.

역은 고고자료를 통해 반파를 상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sup>8)</sup> 기문(己汶)에 관한 연구는 『일본서기』계체기에서 기문(己汶)·대사(帶沙)를 두고 백제와 반파가 대립하는 기사를 통해 연구되었다. 주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과 『한원(翰苑)』 『괄지지括地志』의 내용을 음상사적 접근을 통해 낙동강 유역과<sup>9)</sup> 섬진강 유역으로<sup>10)</sup> 비정하고 있다. 위치비정의 근거인 음상사 비정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위치 비정에 대한 접근법으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문이 기록된 문헌 사료의 양이 매우 부족하므로 고고학적 검토와 접근을 통해 위치비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섬진강 유역에 가야계 고총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남원 동부지역으로 비정하기도 한다.<sup>11)</sup>

남원 동부지역 고분 축조세력을 소가야와 대가야 세력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sup>12)</sup> 소가야·대가야 토기의 편년을 통해 접근하였다.<sup>13)</sup> 반면 남원 동부지역의 고분 축조세력을 독자적인 지역성이 나타나는 가야계 정치세력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sup>14)</sup> 남원 동부지역의 수혈식석곽묘에 대한 속성을 검토하고 축조세력을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이해하였다.<sup>15)</sup> 한편 두락리의 석실묘를 두고 대가야계로 보는 견해와<sup>16)</sup>

- 
- 7) 이도학, 「반파국 위치에 대한 논의」, 『역사와 담론』 90, 2019;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 2, 2020; 「장수 지역 가야, 단일 정치체 伴跋國으로 밝혀지기까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2021; 「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과 그 역사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호남고고학회, 2021.
- 8) 광장근, 「금강 상류지역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한국상고사학보』 66, 2009; 「전북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그 시론」, 『건지인문학』 20, 2020;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 2, 2020;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호남고고학회, 2021;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전상학,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 『한국상고사학회』 39, 2011;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2018;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장수군 가야고분군의 현황과 가치』, 후백제학회, 2021; 조명일,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 41, 2012;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59, 2018;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육영수,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장수군, 2016.
- 9) 김현구, 앞의 논문, 2000; 천관우,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홍성화, 「기문(己汶), 대사(帶沙) 지명 비정에 대한 일고찰」, 『사총』 82, 2014.
- 10) 김태식, 앞의 책, 1993; 박천수,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 『한국상고사학보』 65, 2009; 백승욱, 앞의 논문, 2006; 「4-6세기 백제(百濟)와 가야제국(加耶諸國) -일본서기(日本書紀) 관련기사 검토를 중심으로-」, 『백제학회』 7, 2012;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 『백제학보』 30, 2019. 백승충,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부산대사학회』 19, 1995; 이용현, 「己汶帶沙의 위치 그 위상」, 『전북사학』 59, 2020; 우혜수, 「남원 '己汶國'의 성립과 발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5.
- 11) 광장근,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백제문화』 43, 2010;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백제학보』 9, 20; 김재홍,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 78, 2012; 위가야,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 5년 국제회의의 실상을 중심으로-」, 『사람』 58, 2016; 후보돈, 「5-6세기 금강상류 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동향」, 『대구사학』 106, 2012.
- 12) 김기홍, 「삼국시대 운봉고원 고분축조집단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20; 김세기, 앞의 책, 2003; 문송식,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고분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21; 오동선,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호남고고학보』 117, 2020.
- 13) 김세기, 앞의 논문, 2003; 박승규, 「加耶土器 樣式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10; 박천수, 「대가야권 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 39; 「고고학을 통해 본 대가야사」, 『퇴계학과 유교문화』 42, 2008; 『가야 토기 가야의 역사와 문화』, 2010, 진인진; 이희준, 「고령양식 토기 출토 고분의 편년」, 『영남고고학』 15, 1994;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 2008;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16. 하승철, 「남원지역 가야고분의 구조와 변천」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시, 2014; 「소가야 고고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15.
- 14) 광장근, 「전북 남강 수계지역 석곽묘의 변천과정과 그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26, 1997;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1999; 「전북지역 수혈식 석곽묘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호서고고학』 3, 2000;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 2004;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2011;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2018.
- 15) 전상학, 「全北 東部地域 豎穴式 石槨墓의 構造 研究」, 『호남고고학보』 25, 2007; 오동선, 앞의 논문, 2020; 유철, 「전북지방 묘제에 대한 소고」, 『호남고고학보』 3, 1996.
- 16) 김준식, 「가야 횡혈식 석실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9; 유철, 앞의 논문, 1996.

신라계로 보는 견해로<sup>17)</sup> 구분되기도 한다. 묘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출토유물을 통한 고분 축조집단의 변천과정과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가 있었다.<sup>18)</sup> 출토된 토기를 검토하여 ‘월산리식’ 토기양식을 정리하기도 하였다.<sup>19)</sup> 월산리·두락리에서 출토된 철제 마구는 백제에 의한 기술 수용과 자체 생산 가능성을 상정하였다.<sup>20)</sup> 월산리에서는 고분 축조집단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국제 청자계수호와 철제초두가 확인되었으며<sup>21)</sup> 사여의 주체를 백제<sup>22)</sup> 혹은 대가야로<sup>23)</sup> 보는 견해가 있다. 두락리에서 출토된 금동식리와 수대경은 웅진기 백제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sup>24)</sup>

남원 서부지역은 마한계와 백제계의 묘제 및 유물이 확인되며 5세기 말~ 6세기 초에 일시적으로 대가야 양식이 확인되고 있다.<sup>25)</sup> 6세기 이후 초촌리의 석실묘는 횡구식에서 횡혈식으로 이행하는 양상이 확인되어 지역성을 보인다.<sup>26)</sup> 또한 은화관식이 수습된 척문리와 함께 백제의 중앙세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sup>27)</sup>

본 연구에서는 기문의 위치 비정에 있어서 논란에 있는 문헌사료를 재검토하고, 기문이 남원지역에 비정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분 유적의 검토를 통해 일시적으로 남원지역 일대를 영유했던 남원 동부지역 축조세력에 대해 접근하고 그 세력에 대한 존속기간과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4~6세기 삼국시대에 가야·백제·신라는 기문을 완충지대로 두고 상쟁했다. 기문을 중심으로 펼쳐진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현 남원지역으로 한정한다. 지형상 백두대간을 경계로 서부의 평야지대와 동부의 고원지대로 구분된다. 수계상으로 서부의 섬진강수계와 동부의 남강수계로 구분된다. 시간적 범위는 4~6세기 삼국시대로 한정한다. 『한국고고학개설』과 여러 연구성과에서 삼국시대의 상한을 300년으로 보고 있다.<sup>28)</sup> 본 연구에서 남원지역의 정치세력으로 비정하고 있는 기문(己汶)은 사료상으로 6~7세기에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남원지역 가야계 고분군은 4~6세기로 편년되고 있다.

문헌사료는 남원지역 정치세력으로 비정되는 ‘기문(己汶)’이 기록된 사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양직공도(梁職貢圖)』,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이 있다. 특히 『한원(翰苑)』과 『신찬

17) 최완규,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2018.

18) 김기홍, 앞의 논문, 2020; 문송식, 앞의 논문. 2021; 우애리, 「南原 東部地域 三國時代 古墳의 考古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21.

19) 조인진, 「전북 동부 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001.

20) 유영춘,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 轡, 蛇行狀鐵器, 鎧子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1, 2015;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 남원·장수 삼국시대 분묘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7, 2017;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2018.

21) 박순발,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 2012; 임혜빈, 「삼국시대 계수호와 반구호의 형식 변천과 부장연대」, 『고문화』 96, 2020.

22) 김규정,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성과」,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 2012.

23) 김세기, 「대가야 고대국가론」, 『한국고대사학회』 87, 2017;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개념과 영역」, 『한국고대사연구』 94, 2019; 박천수, 「출토 유물로 본 삼국시대 남원지역의 정치적 향방」,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시, 호남고고학회, 2014.

24) 김재홍,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 59, 2018.

25) 박장근, 앞의 책, 1999.

26) 김동현, 「加耶地域 橫穴系 石室墓의 變遷과 背景」,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2015; 최완규, 「호남지역 고분의 내부시설 전북지방 백제 횡혈석실분」, 『호남고고학보』 6, 1997.

27) 유철, 앞의 논문, 1996; 이동희, 「섬진강유역의 고분」, 『백제와 섬진강』, (재)전북문화재단연구원, 2008; 하승철, 앞의 책, 2014.

28) 최성락, 『시대구분론과 연대문제』, 한국고고학전문대회발표문 37, 2013.

성씨록(新撰姓氏錄)』,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는 기문의 위치비정 연구에 있어서 비중있는 사료이다.

고분유적은 남원 서부지역인 섬진강 수계와 동부지역인 남강수계의 축조된 고분군중에서 발굴조사가 이뤄진 고분군과 출토유물을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남원 서부지역의 고분군은 고죽동, 운교리, 입암리, 사석리, 초촌리가 해당된다. 동부지역의 고분군은 건지리, 봉대리, 북천리, 월산리, 유곡리·두락리, 임리, 청계리, 청계리 광평유적, 행정리가 해당한다.

## II. 문헌을 통해 본 기문

### 1. 문헌사료 검토

#### 가. 기문과 대사

기문(己汶)은 『일본서기』「계체천황」 7년(513) 6월, 백제가 반파(伴跛)에게 기문을 빼앗기자 왜(倭)에게 요청하여 기문을 다시 속하게 해달라는 기록으로 등장한다.<sup>29)</sup> 같은 해 11월, 왜는 백제·사라(신라)·안라(아라가야)·반파의 사신들을 모아놓고 백제에게 기문과 대사를 내려주는 칙명을 내렸다. 이에 반파는 자탄(子呑)과 대사(帶沙) 지역에 축성하여 왜의 사신을 공격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백제는 기문에서 도망친 왜의 사신을 맞이하여 후한 대접을 했고, 기문 지역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sup>30)</sup> 이와 같은 사건은 다음의 사료 B-①~④에 기록되어 있다.<sup>31)</sup>

- B-① 冬 12월 百濟가 사신을 보내어 조를 바쳤다. 따로 표를 올려 임나국(任羅國)의 상다리(上哆唎)·하다리(下哆唎)·사타(娑陀)·모루(牟婁)의 사현(四縣)을 청하였다. 哆唎國守 호즈미노오미오시야마(穗積臣押山)가 주하여 “이 四縣은 百濟와 인접해 있고 日本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는) 朝夕으로 통하기 쉽고 (어느 나라의) 닭과 개의 주인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百濟에게 주어 합쳐서 한 나라로 만들면 保畯의 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백제와) 경계선을 긋는다면 몇 해 동안이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중략) 그래서 사신을 새로이 임명하였다. 선물과 칙의 요지를 주어 표로 올린 대로 임나사현(任羅四縣)을 주었다.
- B-② 여름 6월 백제가 저미문귀(姐彌文貴)장군과 주리즉차(州利卽爾)장군을 호즈미노오미오시야마(穗積臣押山)에 맡겨 보내어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를 바쳤다. 또 따로 아뢰기를 “반파국(伴跛國)이 저희 나라 기문(己汶)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하늘 같은 은혜로 판단하시어 본래 속했던 곳으로 되돌려 주게 해주십시오.”라 하였다.
- B-③ 冬 11월 辛亥朔 乙卯(5일), 조정에서 백제의 저미문귀(姐彌文貴)장군과 사라(斯羅)의 문득지(汶得至), 안라의 신이해(辛己奚), 분파위좌(賁巴委佐), 반파의 기전해(既殿奚)와 죽문지(竹汶至) 등을 불러놓고 은칙을 내렸다. 기문(己汶)과 대사(帶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 달 반파국(伴跛國)이 증지(戡支)를 보내어 진기한 보물을 바치고 己汶의 땅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끝내 주지 않았다.
- B-④ 3월 반파가 자탄(子呑)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와 이어서 봉후(烽候)와 저각(邸閣)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했다. 또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아 마차해(麻且奚)와 추봉(推封)에 걸치게 했다. 사졸과 병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하여 백성을 약탈하고 촌읍을 노략질하였으니 흉악한 세력이 가해진 곳은 남겨진 것이 거의 없었다.

29) 홍성화, 앞의 논문, 2014, 189쪽 참조.

30) 위가야, 앞의 논문, 2016, 176쪽 참조.

31)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6년(512) 12월; 계체천황 7년(513) 6월;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7년(513) 11월;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8년(514) 3월;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9년(515) 2월;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9년(515) 4월;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10년(516) 5월;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10년(516) 9월;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23년(529) 3월.

- B-⑤ 이 달 사도도(沙都嶋)에 이르러 반파인(伴跛人)이 (일본에) 한을 품고 독을 머금었으며, 강성함을 믿고 사납기가 이를 데 없음을 전해 들었다. 모노노베노무라지가 수병 5백 명을 이끌고 곧바로 대사강(帶沙江)으로 나아갔으며 저미문귀장군은 신라(新羅)를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 B-⑥ 여름 4월 모노노베노 무라지가 대사강에서 6일 동안 머물렀는데, 반파가 군사를 일으켜 가서 정벌했다. 옷을 벗기고 가지고 간 물건들을 빼앗고 막사를 모두 불태우자, 모노노베노무라지 등이 두려워 도망해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여 문모라(汶慕羅)에 머물렀다. <문모라는 섬 이름이다>
- B-⑦ 10년(516년) 여름 5월 백제가 전부(前部)의 목협부마갑배(木脇不麻甲背)를 보내어 모노노베노 무라지 등을 기문(己汶)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고 이끌어서 나라로 들어왔다. 여러 신하들이 각각 옷과 쇠도끼·면포를 내어 국물(國物)에 더하여 조정에 쌓아놓고 은근하게 위로했으며 상과 록이 매우 많았다.
- B-⑧ 가을 9월 백제가 주리즉차장군을 보냈는데 모노노베노무라지를 따라 와서 기문의 땅을 준 것에 사례하였다. 따로 오경박사 한고안무를 보내어 박사 단양이와 교대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교대시켰다.
- B-⑨ “무릇 조공하는 사자는 늘 섬 구비[바다 가운데 섬의 굽은 해안을 말한다. 속칭 미사키(美佐祇)라고 한다]를 피하느라 매번 풍파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가지고 가는 물건이 쪼아서 모두 상하여 보기 흉합니다. 가라의 다사진(多沙津)을 신들이 조공하는 나루길로 삼기를 청합니다.”라 하였다. (중략) (다사)진을 백제왕에게 내려 주었다. 이에 가라왕이 칙사에게 이르기를 “이 진은 관가를 둔 이래로 신의 조공하는 나루터였습니다. 어찌 갑자기 바꾸어서 이웃나라에 줄 수 있으며 처음에 봉해 주었던 것을 어길 수 있습니까?”라 하였다. 칙사 치치네 등은 이 때문에 바로 줄 수 없어서 큰 섬으로 되돌아 왔다가 따로 녹사를 보내어 결국 부여(백제)에게 내려 주었다.

위 기사에서 백제는 왜에 임나사현과 기문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찬자의 일본 고대천황주의 사관이<sup>32)</sup> 개입된 부분은 소거하고 이해하여야 한다.<sup>33)</sup> 따라서 백제가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진출하여 영역화한 것으로 판단된다.<sup>34)</sup>

B-①에서 임나사현이 백제와 인접하며 경계선을 그었을 때 지키기 어려운 곳으로 기록되었다. B-②·③에서 백제는 임나사현(任那四懸)을 거쳐 기문과 대사에 도달했다. 기문의 위치 비정은 대사와 임나사현의 비정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sup>35)</sup> B-④에는 반파가 봉화를 운영하였고 신라와 접경지대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B-⑤에서 백제의 저미문귀가 신라를 경유해 귀국했다는 내용과 상통한다. 특히 B-⑤·⑥에서 반파와 왜는 ‘대사’가 아닌 ‘대사강’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B-⑦,⑧은 백제가 기문을 영유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B-②에서 백제와 반파가 요청한 땅은 기문인데 B-③에서 기문과 대사가 같이 언급된다. 이 시점에 대사는 백제의 땅이었는데, B-④~⑥를 통해 보면 대사 및 대사강은 반파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현은 B-③의 기사에서 대사(帶沙)를 제거(消去)해 접근하였다.<sup>36)</sup> B-③에서 백제는 기문만을 영유하였기 때문에 B-④,⑤에서 반파가 대사를 영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B-⑨는 D-③과 같은 년, 월의 기사인데, D-③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D-②의 연대가 522년으로 기록되었다.<sup>37)</sup> 이에 B-⑨의 연대를 522년으로 보고자 한다.

B-⑥에서 물부련은 반파에게 패배하여 대사강을 가로질러 B-⑦의 기문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반파의 통제하에 있었던 대사강의 통제권이 백제에게 넘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8)</sup>

32) 백승욱, 앞의 논문, 2007, 104쪽 참조.

33) 이용현, 앞의 논문, 2020, 9쪽 참조.

34) 우혜수, 앞의 논문, 2015, 35쪽 참조.

35) 홍성화, 앞의 논문, 2014, 186쪽 참조.

36) 이용현, 앞의 논문, 2020, 18쪽 참조.

37) 홍성화, 앞의 논문, 2014, 190~191쪽 참조.

38) 위가야, 앞의 논문, 2016, 198쪽 참조.

## 나. 기문의 성격과 위치

『양직공도』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기문은 백제와 대가야의 영향을 받았으나, 지역 정치세력 집단으로서 소국(小國) 혹은 현(縣)의 형태로 존속했다.

- C-① 백제는 도성을 고마 라고 하며, 읍을 담로라 하는데, 중국의 군현과 같은 말이다. 22담로가 있는데, (왕의) 자제와 종족들을 (담로)로 삼았다. 주변의 소국으로는 반파(叛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前羅), 신라(斯羅), 지미(止迷), 마련(麻連), 상기문(上己文), 하침라(下枕羅) 등이 있었는데, 백제에 부속하였다.<sup>39)</sup>
- D-① 우륵(于勒)이 지은 12곡은 첫째 하가라도(下加羅都), 둘째 상가라도(上加羅都), 셋째 보기(寶伎), 넷째 달이(達已), 다섯째 사물(思勿), 여섯째 물혜(勿慧), 일곱째 하기물(下奇物), 여덟째 사자기(師子伎), 아홉째 거열(居烈), 열째 사팔혜(沙八兮), 열한째 이사(爾赦), 열두째 상기물(上奇物)이다.<sup>40)</sup>
- D-② 9년 봄 3월에 가야국(加耶國)의 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이 이찬(伊滄)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를 보냈다.<sup>41)</sup>
- D-③ 가라왕은 신라 왕녀를 아내로 맞아 드디어 자식을 두었다. 신라가 처음에 왕녀를 보낼 때에 100인을 함께 보내어 왕녀의 종자로 삼았다. 받아서 여러현에 나누어 두고 신라 의관을 착용하게 했다.<sup>42)</sup>

C-①의 『양직공도』에서는 기문이 백제의 방소국인 상기문(上己文)으로 기록되어 있다. 방소국은 521년에 양(梁)에 백제사신을 따라 견사했던 나라들을 말한다.<sup>43)</sup> C-①의 기문은 소국(小國)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견사가 가능할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한 정치세력으로 판단된다.<sup>44)</sup>

D-①에는 우륵에게 제작했던 12곡이 전해지고 있다. 이 12곡의 명칭은 가야諸國의 국명이나 지명으로 이해되고 있다.<sup>45)</sup> 기물(奇物)을 기문으로 이해하여 기문이 6세기 초반까지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②,③의 기사는 대가야의 왕이 신라의 왕녀와 혼인을 하여 100인의 종자를 여러 ‘현(縣)’에 두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대가야에 현(縣)이 있었으며, 우륵의 12곡에 나오는 명칭들은 국(國) 혹은 현(縣)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초반까지 기문은 가야諸國 중에서 주요세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지역 집단으로서의 현(縣)으로 존속하였다.

다음은 기문(己汶)의 위치비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들이다. 『한원』의 『괄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섬진강 유역설, 『신찬성씨록』, 『속일본후기』를 바탕으로 하는 낙동강 유역설로 구분되고 있다.

- E-① 괄지지(括地志)에 말하기를 熊津河는 나라의 동쪽 경계로부터 나오고 서남쪽으로 흐르고 나라의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는 것이 백리이다. 또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강폭이 넓은 곳은 30보이다. 물이 지극히 맑다.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는데, 원천은 그 나라에서 나온다. 원천이 그 나라의 남쪽 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그 안의 수족(水族)은 중하(中夏)와 같다.<sup>46)</sup>
- E-② 大春日朝臣과 조상이 같다. 관송언향식도천황[시, 효소]의 황자 천대언국압인명(天帶彦國押人命)의 4세손 언국증명(彦國葺命)의 후손이다. 일찌기 기성서리궁 어우 여간성입언천황(스진천황) 시대에 임나국(任那國)이 아뢰어 말하기를 신(臣)의 나라 동북쪽에 세 파문(己(巴)汶)의

39) 『양직공도』 백제국사 도경.

40) 『삼국사기』 권32, 잡지1 악.

4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9년(522) 3월.

42)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23년(529) 3월.

43) 예기에 의하면 천자에 속하지 않고 대국(大國), 차국(次國)을 잇는 최하위 등급의 나라이다(이용현, 앞의 논문, 2020, 26쪽 참조.).

44) 백승욱, 앞의 논문, 2019, 215쪽 참조.

45) 신가영, 앞의 논문, 2020, 120쪽 참조.

땅이 있습니다. [상기문[上己(巴)汶]·중기문[中己(巴)汶]·하기문[下己(巴)汶]이다. 땅은 사방 3백리로 토지와 인민이 또한 부유하고 풍요롭습니다. 신라국(新羅國)과 서로 다투어 피차 차지해서 다스릴 수가 없고 전쟁으로 서로 침범하니 인민들이 즐기며 살수가 없습니다. 신은 (일본에서) 장군을 파견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귀국의 鄣로 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크게 기뻐하여 여러 경들에게 명하여 파견할 만한 사람을 주상하라고 하였다.<sup>47)</sup>

E-③ 시조인 鹽乘津은 대왜인이다. 후에 국명을 따라 삼기문(三己汶)의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은 결국 백제에 예속되었다.<sup>48)</sup>

E-①은 백제의 지리 중에 웅진하(熊津河)와 기문하(基汶河)가 있다고 기록한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웅진하는 금강으로 기문하는 섬진강으로 보고, 기문(己汶)을 기문(基汶)과 동일시하여 섬진강에 비정하는 것이 통설이다.<sup>49)</sup> 한편 E-①의 『괄지지』는 639년에 편찬된 사서인데 기문하(基汶河)는 7세기 초~중엽의 명칭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⑤·⑥에는 6세기 초의 섬진강을 대사강으로 기록하다가 7세기 초에는 『괄지지』에서 기문하(基汶河)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섬진강의 고명(古名)은 6세기~7세기 사이에 명칭이 변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②의 『신찬성씨록』과 E-③의 『속일본후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문(己汶)은 임나(任那)의 동북쪽에 있고 신라와의 상쟁이 가능한 지역이다. 백제의 땅에 속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위치는 낙동강 중·상류 유역이 해당한다. 그런데 E-②과 E-③이 전하는 내용은 삼기문을 제외하고 볼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E-②은 기문의 지리적 위치와 범위가 언급되고 E-③는 기문이 백제에 예속된 시기와 길대상이라는 인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E-②의 편찬시기는 당시 도래인들의 개성(改姓)을 통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시기였다.<sup>50)</sup> 왜는 본계장을 제출을 요구했고<sup>51)</sup> 이에 따라 천황과 친밀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시조를 조작하였다. 시기적으로 늦게 편찬된 『일본문덕천황실록』에서 유추할 수 있다.<sup>52)</sup> 또한 스진천황기 기사에서 E-②과 부합되는 내용이 없으며 길전련 조상과 관계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sup>53)</sup> 반면 E-③에는 삼기문이 백제에게 예속되자 달솔 길대상은 왜로 돌아가 길전련(吉田連)의 성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sup>54)</sup> 『일본문덕천황실록』에서 길전련 가계는 대대로 천황의 시의(侍醫)였다. 즉 671년에 관위를 받은 길대상은 적어도 7세기 중엽에 삼기문에서 왜로 건너왔으며, 기문이 백제에 예속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46) 『한원』 백제전.

47) 『신찬성씨록』 좌경황별하 길전연조; E-②인 『신찬성씨록』에는 ‘巴’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E-③의 『속일본후기』에서는 ‘己’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巴汶’을 ‘己汶’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백승욱, 앞의 논문, 2006, 106쪽 참조).

48) 『속일본후기』 좌경황별하 길전연조.

49) 백승욱, 앞의 논문, 2006, 106쪽 참조.

50) 간무천황은(桓武天皇, 781~806)은 백제계 도래인을 우대했던 시기다. 당시 왜에서 성(姓)씨는 곧 신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래인들이 개성(改姓)하였다.

51) 『일본후기』 연력18년 12월 무술조. “천하에 포고하여 본계장을 진상토록 하라.”

52) 『일본문덕천황실록』 권2, 문덕천황 가상3년(850) 11월, 본래의 성은 길전련이며 그의 선조는 백제 출신이다. “

53) 스진천황기에 시조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활목존(活目尊)·무제우(武諸隅)·출운진근(出雲振根)만이 등장한다(『일본서기』 권5, 승신천황 48년(B.C 50) 4월; 승신천황 60년(B.C 38) 7월.).

54)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10년(671) 1월.

## 2. 음상사(音相似) 위치비정

### 가. 낙동강 유역의 감문(甘文)·다사(多斯)

기문(己汶)의 위치를 낙동강 유역의 경북 김천시 개령면(開寧面)으로 비정한다. 개령(開寧)의 고명(古名)은 ‘감문(甘文)’인데, 『일본서기』에서 기문(己汶)이 ‘고모무’, ‘고몽’으로 읽히는 것을 감문(甘文)으로 비정했다.<sup>55)</sup>

F-① 개령군(開寧郡)은 옛날 감문소국(甘文小國)이다. 진흥왕(眞興王) 18년(557) 진(陳)의 영정(永定) 원년(557)에 군주(軍主)를 두고 청주(靑州)로 삼았다. 진평왕(眞平王)때 주(州)를 폐하였다. 문무왕(文武王) 원년(661)에 감문군(甘文郡)을 두었다.<sup>56)</sup>

F-② 18년 사벌주(沙伐州)를 폐하고, 감문주(甘文州)를 설치하여 사찬(沙漣) 기종(起宗)을 군주(軍主)로 삼았다.<sup>57)</sup>

F-①에는 개령면의 고명으로 기문(己汶)과 유사한 감문(小國)·금물(懸)이 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E-②의 내용과 부합한다.<sup>58)</sup> 이를 근거로 기문(己汶)을 김천시 개령면으로 비정하며 대사와 임나사현의 위치도 김천시 인근으로 비정한다. 대사는 낙동강 중·상류의 다사지(多斯只, 只=城)로 보아, 달성군 다사(多斯)·하빈(河濱)으로 비정되고 있다.<sup>59)</sup>

하지만 위의 주장으로는 기문을 낙동강 유역으로 비정하기 어렵다. 사료 E-②,③에서 기문은 7세기 중반 길대상(吉大尙) 대에 백제에 예속되었고, 그 주민들이 백제인화 되었기 때문이다.<sup>60)</sup> 또한 앞서 살펴본 B-③의 기사에서 기문은 6세기 초에 백제의 영역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천시는 6세기 초~7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백제의 영역이어야지만, F-②에서는 6세기 때 신라의 9주로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사로 비정되는 대구 달성군의 다사(多斯) 역시 무리가 있다. B-③,⑨는 6세기에 백제가 대사를 영유한 내용이지만, 이 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은 이미 4세기 때부터 신라화가 이뤄지고 5세기 중엽에는 신라의 영역이 되어 있다.

55) 천관우, 앞의 책, 1991, 41~43쪽 참조.

56)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개령군.

5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8년(557).

58) 김태식, 앞의 책, 1993, 117~118쪽 참조.

59) 천관우, 앞의 책, 1991, 43쪽 참조.

60) 김태식, 앞의 책, 1993, 119쪽 참조.

### 나. 섬진강 유역의 기문(基汶)·다사(多沙)

E-①에서 웅진은 오늘날 공주의 삼국시대 한자식 이름이며 웅진하는 백제의 왕도를 흐르는 대표적인 강이다. 웅진하가 강 연안의 지명이 웅진과 관련한 것처럼, 기문하 역시 지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61)</sup>

G-① 하동군(河東郡)은 본래 한다사군(韓多沙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셋이다. 성량현(省良縣)은 지금의 금량부곡(金良部曲)이다. 악양현(嶽陽縣)은 본래 소다사현(小多沙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하읍현(河邑縣)은 본래 포촌현(浦村縣)인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상세치 않다.<sup>62)</sup>

G-①에는 하동군의 고명(古名)인 한다사군(韓多沙郡)과 하동군 악양현의 고명(古名)인 소다사현(小多沙縣)에서 '다사(多沙)'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B-⑤~⑦에는 물부련은 사도도(沙都島) → 대사강(帶沙江) → 기문(己汶) → 웅진(熊津) 순의 경로로 백제에 도달하고 있다.<sup>63)</sup> 섬진강 유역의 하류인 경남 하동군이 대사로 비정됨에 따라 기문의 위치도 섬진강 유역에 찾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처럼 E-①의 기문하(基汶河)와 대사를 통해 기문의 위치를 섬진강 중·상류 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기문의 위치비정은 여전히 논란 속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기문(己汶)의 위치비정 (섬진강 중·상류)

1	2	3	4	5
섬진강 중류 (남원)	섬진강 중·상류 (임실)	동명이지 (同名異地)	남원 동부지역 (운봉/남강유역)	진안·장수·임실·남원

위 견해들의 한가지 공통점은 남원지역을 포함하여 비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문을 남원지역의 정치세력으로 비정하고 고분유적을 검토하고자 한다.

## Ⅲ. 고분을 통해 본 축조집단

### 1. 남원지역의 고분

남원지역의 고분유적은 53개소 180여기 이상의 유적이 분포하고 발굴조사 이뤄진 고분군은 14개소의 고분군이다. 고분 유적은 수계상으로 섬진강유역과 남강유역으로 구분된다. 서부지역인 섬진강유역에는 5개소의 유적이 분포하며 남강유역인 동부지역에는 9개소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61) 이용현, 앞의 논문, 2020, 8쪽 참조.

62)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하동군.

63) 백승욱, 앞의 논문, 2006, 109쪽 참조.

## 2. 고분유적 검토

남원 서부지역은 ‘분구묘 및 토광묘 - 석곽묘 - 석실묘의 변화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동부지역은 ‘목곽묘 - 석곽묘(수혈식·횡구식) - 석실묘(횡구식·횡혈식)’의 변화과정이 확인되고 있다.<sup>64)</sup> 삼국시대 남원지역의 주 묘제는 분포와 양상을 확인했을 때 수혈식 석곽묘로 이 지역의 토착 세력이 발전시킨 주 묘제로 판단된다.<sup>65)</sup> 유구의 검토는 4~7세기 삼국시대의 묘제인 목곽묘·석곽묘·석실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혈식 석곽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sup>66)</sup>

### 가. 목곽묘

남원 동부지역의 목곽묘는 남원 광평유적 고분군의 2기가 있으며 묘광의 장단비를 통해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다. 광평유적 목곽묘의 묘광은 각각 2.6:1과 3.4:1이며, 청계리 고분군 목곽묘의 묘광도 2.3:1로 전부 소가야 양식에 부합한다.<sup>67)</sup> 또한 청계리 광평유적 목곽묘의 상면시설을 보면, 1호와 2호 모두 상면에 아무런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무시설인 A식에 해당한다.<sup>68)</sup> 같은 형식이 확인되는 고성 송학동고분군 1E, 진주 무촌 유적, 산청 옥산리 고분군과 함께 4세기의 유적으로 판단된다.<sup>69)</sup> 다만 출토된 고배가 뚜껑받이 턱이 강하게 돌출되고 이등변 삼각형의 투창 3개가 뚫려 있어 산청 중촌리 고분군 3호의 고배와 함께 5C 1/4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70)</sup> 남원 청계리 광평유적의 묘제와 유물인 고배를 통해 소가야 묘제와 토기가 판단되며, 운봉고원 일대까지 소가야 문화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적의 시기는 4C 말 ~ 5C 1/4분기로 판단된다.

### 나. 석곽묘

#### 1) 수혈식 석곽묘

남원지역에서 102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 평면형태, 장벽축조기법이 모두 확인되는 석곽묘 83기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고분군의 속성으로는 규모, 평면형태, 장벽축조기법을 검토했다. 규모는 I형(3㎡ 미만, 소형), II형(3㎡이상 ~ 5㎡미만, 중형), III형(5㎡이상, 대형)으로 분류했다. 평면형태는 A형(3㎡미만, 장방형), B형(3㎡이상 ~ 5㎡미만, 준세장방형), C형(5㎡이상, 세장방형)으로 분류했다. 장벽 축조기법은 가·나·다·라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원지역 수혈식 석곽묘 83기의 속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장벽축조기법 > 규모 > 평면형태’로 정리했다. 이 3가지의 속성을 통해 유형분류를 진행했는데, 장벽축조기법 중 라형의 경우 뚜렷한 속성과 유형 판별이 어려워 본 고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선학들의 편년안을 참고하여 유형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다.

1유형의 고분으로는 행정리 11호, 청계리 2호가 있다. 2유형의 고분으로는 청계리 광평 석곽묘 1호, 행정리 4호 청계리 3호, 월산리 M2·M3호가 있다. 특히 월산리 M2·M3호는 가III C의 M1-A호분보다 먼저 축

64) 김기홍, 앞의 논문, 2019, 62쪽 참조.

65) 광장근, 앞의 책, 1999, 183쪽 참조.

66) 본 고에서는 초기철기·원삼국시기의 묘제인 토광묘·옹관묘·분구묘는 제외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67) 김해·부산지역인 금관가야의 장단비는 1.5:1 ~ 2:1, 함안지역인 아라가야는 1.75:1 ~ 2.75:1, 고성지역인 소가야는 1.5:1 ~ 3.5:1의 비율로 확인되고 있다(하승철, 앞의 논문, 2015, 64쪽 참조.).

68) 김규정, 앞의 책, 2012, 108~111쪽 참조.

69) 하승철, 앞의 논문, 2015, 68쪽 참조.

70) 가야에 유개식 고배가 등장하면서, 뚜껑받이 턱이 강하게 돌출되고 다양한 투창이 등장하는 시기이다(하승철, 앞의 논문, 2015, 75쪽 참조.).

조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선후 관계는 나ⅡB, 나ⅡC→가ⅢC로 시간성이 보인다. 가ⅢC형은 부곽이 전부 I형으로 확인되며, 부곽이 축조된 시기를 기준으로 주곽을 분류하였다. M1-A호는 5유형으로 분류했으므로 M2·M3호는 전 유형인 2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유형의 고분으로는 남원 서부지역에 분포하는 고죽동 1·4호·운교리 4호가 있다. 4유형의 고분으로는 건지리·봉대리·임리 고분이 있다. 5유형은 월산리와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에서 확인되며, 축조 시기는 5세기 중·후반~6세기 초·중엽으로 추정된다. 나형에서 ⅡC·나ⅢC는 부곽이 확인되지 않지만, 두락리 고분군에 속하는 점과 5유형의 축조시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두락리 30호·3호를 포함하여 같이 검토하였다. 대표인 고분으로는 월산리 M1-A호·M5호, 두락리 1호·32호가 있다.

## 2) 횡구식 석곽묘

남원지역의 횡구식 석곽묘는 봉대리, 운교리, 복천리, 임리 고분군에서 확인된다.

운교리 고분군의 횡구식 석곽묘는 1호와 3호이다. 남원 서부지역 중에서 유일한 횡구식 석곽묘이다. 1호에서 출토된 단경소호는 백제 웅진기로 편년되는 분강·저석리유적 14호의 기종과 유사하다. 3호의 삼족기는 인근의 5세기 후반~6세기 초로 편년되는 진안 황산리 유적의 삼족기보다 늦은 시기로 파악된다. 유개장경호는 6세기 전반으로 판단되며 합천 삼가 1A 석곽묘 출토 장경호와 유사하다.<sup>71)</sup>

봉대리 고분군 2호는 유적 내의 1호와 같이 최상단부에 위치하고 바닥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출토된 유개장경호는 전부 대가야 후기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다.<sup>72)</sup> 병형토기는 전체적인 소성상태나 제작기법에서 백제 지역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sup>73)</sup> 반면 신라후기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인 단각고배도 출토되었다.

임리 고분군의 횡구식 석곽묘는 1호이다. 봉토의 중심부에 1호가 배치되었고 북쪽에 순장곽인 1-1호·1-2호가 배치되어 있다.<sup>74)</sup> 3기의 석곽은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sup>75)</sup> 횡구식의 구조와 등고선과 직교하는 장축방향 등은 백제계 속성을 보이고 있다.<sup>76)</sup> 출토된 유개장경호는 전형적인 고령 양식의 토기로 보이며 일부는 백제계 토기로 확인된다. 이 외에 유개장경호는 5세기 4/4분기, 개배는 6세기 1/4분기 등으로 추정되며 임리 1호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말 ~ 6세기 초반으로 판단된다.

복천리 고분군의 횡구식 석곽묘는 3호이다. 장축은 능선의 진행방향과 나란하다. 묘광은 구지표를 정지하고 'ㄴ'형으로 굴착 후에 벽석과 봉토를 동시에 성토한 반지하식 구조이다. 구조상 매장주체부만 지하에 위치한다. 횡구부의 양쪽 장벽석을 바깥쪽으로 벌어서 축조하고 '八'자의 형태를 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없지만 보고자는 임실 석두리 고분과의 유사성을 들어 후기 가야계 고분 양식으로 보고 6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sup>77)</sup>

71) 김승욱, 앞의 책, 2011, 53~54쪽 참조.

72) 호남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3, 87쪽 참조.

73)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2017, 154쪽 참조.

74) 석곽의 유물이 단벽에 치우쳐 출토된 양상은 시신의 매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군산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13, 89쪽 참조).

75) 주곽은 다형 축조기법, 부곽은 나형 축조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가형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곽과 부곽의 축조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기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76) 군산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13, 89~92쪽 참조.

77)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4, 70~72쪽 참조.

## 다. 석실묘

### 1) 횡구식 석실묘

남원지역의 석실묘는 초촌리, 사석리,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에서 확인된다.

초촌리고분군은 보고자에 의해서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그중 횡구식석실묘로 분류되는 유형은 제 IV유형<sup>78)</sup>이다. IV유형은 6세기에 나타난 I·II유형과 공존한 것으로 확인되며<sup>79)</sup> 시기는 6세기 초~중반으로 판단되고 있다.<sup>80)</sup>

북촌리 고분군의 횡구식 석실묘는 장방형 현실(玄室)이며, 최하단석은 가로로 세워져 쌓았고 2단 이상은 가로와 세로를 혼용하여 넓혀 쌓았다. 일반적으로 신라권역에서 확인되는 동일한 구조이며 신라계 단각고배가 출토되었다.<sup>81)</sup> 단각고배는 장대리고분군에 주로 출토되는 양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장대리고분군의 출토유물들은 대다수가 단각고배와 대부장경호이며, 이와 같은 형식은 6세기 중엽의 경주 황룡사지 창건기 토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sup>82)</sup> 경주 황룡사지와 금산 장대리고분군, 북천리고분군의 연대가 같은 시기로 보이며 유적의 시기는 6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 2) 횡혈식 석실묘

남원지역의 횡혈식석실묘는 유곡리·두락리, 사석리, 초촌리 고분군에서 확인된다.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는 김준식의 유형 분류안에 따라 ID(2)-⑤형으로 분류된다. ID(2)형은 방내리식으로 경주 서쪽 외곽에서 확인되는 양식이다.<sup>83)</sup> 대형의 방형 석실묘는 대가야 멸망 이후 6세기 중~후엽에 등장하는 유형이다. 또한 현실과 연도 경계부에 유사 현문시설이 등장하는 유형인데<sup>84)</sup> 2호분에서도 1개의 문비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85)</sup> 출토유물로 유개단각고배편과 황룡사형 대장식구 일부가 확인되었다.<sup>86)</sup> 축조석재나 축조수법에서 백제의 석실분과 차이를 보여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87)</sup> 따라서 두락리 2호분의 묘제는 신라계 횡혈식 석실묘로 이해할 수 있다.<sup>88)</sup> 한편 대가야 고분에 신라토기가 부장된 경우 재지세력의 유력층이라는 견해도 있다.<sup>89)</sup> 유적의 시기는 6세기 중엽~후엽으로 판단된다.

초촌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에 대한 최완규와 김동헌의 편년을 종합·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초촌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는 6세기 초에 M13·M21·M37·M43가 축조됐으며, 백제가 남원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

78) 제4유형은 폭이 좁은 장방형평면의 현실로서 남쪽의 단벽을 천석으로 폐쇄한 횡구식 석곽분이다. 할석으로 3벽을 쌓고 동서의 측벽은 천장축을 좁혔으나 북벽은 수직에 가깝다(전영래, 앞의 책, 1994, 106쪽 참조).

79) 이동희, 「섬진강유역의 고분」, 『백제와 섬진강』,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106~107쪽 참조.

80) 최완규는 평면형태, 연도위치, 축조재료, 천장형태를 통해 유형을 분류했다. 이 분류안을 초촌리고분군에 적용시켰고 I형(웅진 2식), II(웅진 3식), III(사비 3식), IV(I·II형 공존)으로봤다(최완규, 앞의 논문, 105~106쪽 참조).

81) 김기홍, 앞의 논문, 2020, 45쪽 참조.

82) 한남대학교박물관, 『금산장대리고분군』, 충청남도금산군, 1992, 144쪽 참조.

83) 김준식, 앞의 논문, 2019, 87~89쪽 참조.

84) 김준식, 앞의 논문, 2019, 81~87쪽 참조.

85) 이 문비석은 조사 당시 연도와 현실의 연결부 남쪽에 놓여 있었는데, 재구성하면, 상면과 좌우측에 약간 공간이 남는다(윤덕향, 광장군, 앞의 책, 1989, 27쪽 참조).

86) 석실 내에서 출토된 청동제 대금구가 7세기 전반 신라의 중앙·지방 유력자의 무덤에 한정 부장되는 물품이다. 박종욱은 신라가 지배세력을 해체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했다(박종욱, 「7세기 초 新羅와 百濟의 阿莫城 戰鬪」,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2, 12쪽 참조).

87) 최완규, 앞의 논문, 2018, 10쪽 참조.

88)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인근 고분유적과의 축조 시기와 출토유물을 감안하고자 한다. 북천리 고분군에서는 횡구식 석곽묘·석실묘가 축조됐으며, 봉대리 고분군과 함께 신라계 단각고배가 출토됐다. 두 유적의 축조시기는 6세기 중엽으로 확인된다. 두락리 2호분에서도 신라계 토기가 나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89) 대가야 멸망 후 고령 지산동의 기존 고분군에 신라토기를 부장한 고분이 연속해서 축조되는 현상은 그 신라토기를 부장한 무덤의 주인공이 신라인이 아니라 재지의 유력층이었음을 말해준다. 그 지역 지배층이 대가야 멸망 후에도 지역 집단으로서 일정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이동희, 「후기 가야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85, 2017, 135쪽 참조).

음을 의미한다. 6세기 초~중엽에 M60호가 축조됐다. 6세기 말에는 M3·M10·M19가 축조됐고 백제의 완전한 통치 편재에 들은 시기이다. 유적의 시기는 6세기 초 ~ 6세기 말경으로 판단된다.<sup>90)</sup>

사석리 고분군 횡혈식 석실묘의 특징으로는 주구를 들 수 있다. 주구는 일반적으로 마한의 분묘 규모 주위에 시설되는데, 횡혈식 석실묘인 3호분의 봉토를 따라 주구가 축조되어 있다. 또한 석실의 위치가 지상에 가깝고 벽석을 쌓으면서 봉토를 축조해나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백제의 진출로 인해 마한의 분묘 규모가 횡혈식 석실묘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sup>91)</sup> 사석리의 석실묘의 출토유물인 배(杯)는 남원 초촌리 M60호분에서 출토된 배(杯)와 형태가 유사하다. 사석리 고분유적의 시기는 6세기 초~중엽으로 판단된다.

## IV.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

### 1. 성립

4세기 말 남원 서부지역 섬진강에는 재지·마한계 세력인 기문이 위치하고 있었다. 기문은 백제의 남정으로 백두대간을 넘어 남원 동부지역의 운봉읍 행정리로 세력이 이동하였다.<sup>92)</sup> 남원 동부지역 아영면 청계리에는 남강수계를 통해 이동하였던 소가야계 목곽묘 축조세력이 등장하게 된다.<sup>93)</sup>

5세기 초 운봉읍 행정리 세력인 기문은 여전히 재지계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청계리 2호분 2·3호곽은 T자형의 배치형태를 보여 대가야양식이 확인된다. 석곽의 축조와 봉토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재지계 양식도 확인된다. 아영면 청계리 세력은 기문과의 교류를 통해 토착문화를 받아들이지만, 아라가야와 대가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가야계 세력의 성격을 가진다.<sup>94)</sup> 행정리에서는 재지계 양식이 주를 이루지만, 청계리에서는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지계 기문은 청계리 축조세력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 중엽 남원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는 행정리 4호, 청계리 2호분 1호, 월산리 M1-A호에서는 대가야계 양식의 묘제와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재지·백제계가 주를 이루던 행정리에서는 호석을 두른 것이 확인되고 있다. 청계리에서는 대가야계 양식의 2호분 1호곽이 축조되는데 선행하는 2호·3호곽과 같은 봉토에 축조되어 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행정리와 청계리에서는 고분군 축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M2·M3호를 일부 파괴하고 다곽식인 M1-A를 축조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가야가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가야계 양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재지·소가야계 양식이 확인되고 있다. 기문은 대가야의 강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90) 초촌리 고분군 대가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근의 척문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은제화형장식은 6세기 후반 백제 관인의 존재를 보여준다(하승철, 앞의 책, 2014, 106쪽 참조).

91)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4, 86쪽 참조.

92) 입암리에는 석관묘 혹은 석곽묘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가야 이전의 석곽묘를 채택한 세력 집단을 상정하였다. 토기의 조합상으로 볼 때 재지·백제계 양식이 확인되며 시기는 4세기 말엽으로 파악하고 있다(곽장근, 앞의 책, 164~201쪽 참조).

93) 초기 소가야의 문화 분포양상은 아라가야토기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같은 시기의 대가야와 아라가야에 비해 출토되는 철기량이 빈약하였다. 5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소가야 토기 양식이 정형화된다. 강한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남강수계와 남해안 세력의 결속을 위해 교역로를 확보 하였으며(하승철, 앞의 논문, 2015, 124~125쪽 참조.), 이 중 일부 세력이 남원 동부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4세기 말~5세기 초까지 아영면에 속하는 소가야계 청계리 세력과 운봉읍에 속하는 행정리 세력으로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94) 이러한 유물의 부장 양상은 아라가야 문화권의 분포를 통해 설명된다. 아라가야의 토기 문화는 4세기 4/4분기~5세기 1/4분기에 전 영남권에서 전개된다. 하승철은 토기의 제작기술을 공유하여 생긴 것으로 이해했으며, ‘범영남양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하승철, 앞의 논문, 2015, 119~121쪽 참조).

## 2. 발전

5세기 말 남원 동부지역은 대가야계 양식이 주를 이루지만 재지계 양식이 같이 나타난다. 대가야는 이 지역을 직접지배 하려 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재지 수장층을 두고 간접지배하고자 했다. 당시 5세기 중·후반부터 소가야계 토기 양식이 확산세를 보인다. 소가야는 남원 동부지역으로 진출하는 함양과 산청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sup>95)</sup> 또한 고구려는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었으므로 대가야 역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은 481년 백제·신라·가야 연합군이 고구려에 맞서 싸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원 동부지역 양상은 변화한다. 본래 수장층급의 고분인 M1-A호는 대가야계 속성이 강했으나 대가야의 영향력이 약해진 후에 월산리 M5호에 이르면 재지계 속성이 강해진다.<sup>96)</sup> 이러한 양상은 월산리에서 이동한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도 확인된다.<sup>97)</sup> 기문은 5세기 중엽에 대가야에 의한 융합을 통해 재지·가야계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5세기 말에 대가야의 영향 아래에서 독립성을 띠는 정치세력으로 변모(變貌)한다.

월산리 M5호분과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는 재지 수장층의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백제계 위세품이 출토된다. 대가야의 직접지배를 받는 형태였다면 출토된 위세품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대가야는 보국장군 본국왕의 관위를 받을 정도로 강성해져 있었다. 백제는 강성해진 대가야를 재지 수장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백제의 위세품이 출토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야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간접지배의 형태로 존속했기 때문에 기문에서 백제계 위세품이 출토되었다.

백제의 위세품 사여 배경에는 기문의 급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M5호분에서 출토된 철기와 마구<sup>98)</sup> 재지 생산품이며 이러한 철기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세력이었다.<sup>99)</sup> 남원 동부지역을 둘러싼 제철유적이 이를 뒷받침한다.<sup>100)</sup> 기문은 백제에게 있어서 후방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부상하였다. 백제는 위세품을 사여함으로써 지방 세력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후방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다만 혼란했던 백제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위세품의 출토는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 종주국으로서 사여하는 것이 아닌, 급성장한 기문을 위협적인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한편 남원 동부지역의 문화분포 양상은 서부지역의 고죽동·운곡리까지도 확인된다. 아영면을 중심으로 했던 기문이 서부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문의 진출은 대가야와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일치한다. 기문은 본래 남원 서부지역의 재지 세력이었으며, 대가야는 강성해진 소가야로 인해 섬진강 유역을 통한 교통로 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sup>101)</sup> 이해관계의 일치와 백제의 혼란한 정세(政勢)는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해줬다. 순천 운평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는 5세기 말로 편년되고 남원 유곡리·두락리 1호분과 같은 시기로 편년 된다. 하동 흥룡리 출토품도 5세기 말의 대가야계 양식이다.<sup>102)</sup> 즉 5세기 말에 대가

95) 5세기 후반 남강 상류를 장악한 대가야는 남강을 따라 산청과 진주권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소가야는 결속을 다져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하승철, 앞의 논문, 2015, 125쪽 참조).

96) M1-A호의 내만타원형판비는 5세기 말~6세기 초로 편년되는 대가야계 양식이다. 반면 M5호분의 내만타원형판비는 가야계보다 백제계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유영춘, 앞의 논문, 2018, 68-69쪽 참조).

97) 광장근, 앞의 책, 1999, 210쪽 참조.

98) 출토된 사형상철기는 장식을 위한 마구로 파악되며 피장자의 권력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가야와 신라에서도 출토되지만, 극소량만 출토되고 있어 월산리 M5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유영춘, 앞의 논문, 2018, 69쪽 참조).

99) 이 지역의 마구들은 타지역 출토품과 제작기법 및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편년이 빠르다. 이러한 정황은 자체생산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유영춘, 앞의 논문, 2015, 116쪽 참조).

100) 남원 동부지역은 크게 아영분지, 운봉고원, 산내면으로 구분되는데 산줄기를 따라 제철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산내면에는 밀집분포하고 있다(광장근,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52, 2015, 220-221쪽 참조).

101) 박천수는 대가야가 5세기 전반부터 고령→합천→거창→함양→남원에 이르는 교통로의 주요세력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았다. 5세기 후반에 섬진강을 따라 곡성→구례→하동→남해안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형성으로 이해했다(박천수, 앞의 논문, 1997, 186쪽 참조).

야와 기문은 섬진강 유역에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6세기 초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의 남진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백제는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sup>103)</sup> 백제는 513년에 남원 서부지역의 하기문 지역을 점령한다. 이 시기에 남원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동·서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인다. 하기문 지역은 가야계에서 백제계 양식으로 변화했다. 고죽동·운교리 고분은 수혈식 석곽묘에서 횡구식 석곽묘로 양식이 달라지며 백제계 유물이 출토된다. 초촌리 고분군에서는 횡구식·횡혈식 석실묘가 축조된다. 상기문 지역은 대가야계의 양식이 더욱 확산해진다.<sup>104)</sup> 한편 두락리 1호분, 건지리·임리 고분군이 축조되고 전형적인 대가야 양식의 토기가 부장된다. 하지만 여전히 재지계 속성의 토기가 출토되어 재지 수장층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가야계 세력이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기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지리 고분군과 장수군 삼고리 고분군의 유물 부장양상이 유사성을 보인다. 상기문 지역에 영향을 준 정치세력은 고령의 대가야보다, 같은 양상을 보이는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축조세력으로도 볼 수 있다.<sup>105)</sup> 최근 장수지역 고분군의 축조세력을 반파로 비정하고 있다.<sup>106)</sup> 장수지역에서도 남원 아영면과 경계를 이루는 변암면은 섬진강 상류가 흐른다.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분군 축조세력이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봉화는 장계면을 중심으로 여덟 갈래의 봉화로가 확인됐다. 특히 봉화사에서 6세기를 전후로 편년된 가야계 토기편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출토품과 일치한다.<sup>107)</sup> 이러한 고고 유적의 분포양상을 토대로 문헌사료를 접목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514년에 반파는 봉후와 저각을 설치하여 백제와 일본에 맞선다. 515년 4월 왜의 모노노베 노무라지는 ‘대사강’에서 반파와 6일 동안 싸웠으나 패배했다.<sup>108)</sup> 이후 백제는 516년 5월이 되어서야 기문에서 모노노베 노무라지를 맞이한다. 즉 백제가 513년에 하기문을 점령했지만 반파는 상기문을 중심으로 다시 탈환한다. 그리고 514년에 봉화를 설치하여 백제와 왜의 군사에 대응하였다. 515년 2월에 사도도에 주둔하던 왜는 섬진강으로 진입했고, 4월에 반파도 섬진강 상류를 통해 진입하여 왜를 격퇴한다. 다시 백제는 516년에 기문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 이 시기에 반파와 기문이 반격하지 못하는 이유로 남원지역의 문화 분포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지역의 운봉읍 임리, 아영면 봉대리에서는 백제계 토기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즉 백제는 기문의 중심지인 두락리 고분군까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백제가 기문을 영향권으로 포함할 때까지 반파가 힘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비춰진다.<sup>109)</sup>

이후 하기문에서 왜를 맞이하는 것은 백제와 왜가 다시 교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521년 백제와 신라의 사신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낸다.<sup>110)</sup>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백

102) 박천수,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366쪽 참조.

103) 신가영, 앞의 논문, 2020, 126쪽 참조.

104) 이희준은 대가야 전북동부지역을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세력 확대를 한 것으로 이해했다(이희준, 앞의 책, 260쪽 참조.)

105) 남원과 장수에서 출토된 편자는 고령과 합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 말~6세기 초엽에 전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편자의 제작 및 활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유영춘, 앞의 논문, 2017, 48쪽 참조.).

106) 본 연구에서는 장수지역에 대한 문헌과 고고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6세기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와 각축전을 벌인 대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수지역은 고고학적으로 남원 동부지역과 유사하다. 특히 문헌 사료에 등장하는 봉화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곽장근, 앞의 책, 2021, 47-68쪽 참조.). 전북 동부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지역적 특징은 반파를 대가야의 중앙세력으로만은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반파를 기문과 같이 장수지역에서 대가야의 현으로 존속했던 가야계 정치세력으로 접근했다.

107) 곽장근, 앞의 책, 호남고고학회, 2021, 47쪽 참조.

108) 대사는 경남 하동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섬진강 하구에 해당한다. 반파가 왜와 전투를 벌인 곳은 대사가 아닌 ‘대사강’이다. 이를 통해 반파와 왜가 전투를 벌인 곳은 섬진강 유역으로 볼 수 있다.

109) 521년 『양직공도』에서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반파는 541년과 544년 사비 회의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삼고리 하위계층 분묘에서는 백제계 삼족기, 병형토기가 출토되는데, 인근 유적을 포함하여 백제계 횡구식·횡혈식 석실묘가 확인되지 않는다(곽장근, 앞의 책, 69쪽 참조.).

11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21년(521) 11월.

제·고구려·대가야를 제외한 국가들을 방소국으로 언급했다.<sup>111)</sup> 특히 반파(伴跛)는 백제의 멸시적인 성격이 반영되어 반파(叛波)로 표기된다.<sup>112)</sup> 백제는 상기문을 방소국으로 두었는데 그 배경에는 신라가 있다. 529년 백제의 성왕이 안라고당회의와 541년·544년 사비회의에서 가야諸국을 부흥시켜 신라를 견제하려는 의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쇠퇴

6세기 중엽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면서 가야지역에 신라 양식의 묘제가 확인된다. 고령지역에서는 왕묘의 조영이 정지되고 신라양식의 부장품이 출현한다.<sup>113)</sup> 6세기 2/4분기에서 3/4분기로 넘어가면서 고령양식 토기가 신라계 토기로 대체되기 시작한다.<sup>114)</sup> 남원지역에도 같은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아영면 일대의 봉대리 2호는 백제계와 신라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운봉읍 북촌리에는 신라계 양식의 묘제와 유개 단각고배가 출토된다. 신라가 남원 동부지역의 아영면과 운봉읍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두락리에서는 신라계 횡혈식 석실묘인 2호가 축조된다. 두락리 2호에서는 신라계 토기편과 황룡사 청동제 대금구가 출토된다. 황룡사는 566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신라가 가야권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생각하면 두락리 2호분 출토품은 6세기 중엽 이후로 판단된다. 또한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신라토기가 부장되어 재지 수장층의 존재를 보여준다.

반면 서부지역의 사석리 고분군은 재지계 분구묘 인근에 백제계 횡혈식 석실묘가 축조된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마한세력이 오랜 기간 있었다는 점과 백제의 지방통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초촌리는 웅진기에서 사비기 양식으로 변화할 뿐 정치세력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근에 척문리에서는 은제화형장식이 출토되어 백제 관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7세기 초 백제의 무왕이 등극하고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602년 백제는 남원 동부지역의 아막성을 포위했으나 신라의 지원군으로 물러섰다. 신라는 아막성 인근 4개의 성을 신축한 후 백제지역으로 진출했다. 백제는 이에 대응하여 4만의 병력으로 공세를 펼치지만 결국 패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제의 무왕이 즉위 2년 만에 신라의 영역인 아막성을 공격한 기록이다. 무왕은 과거 백제의 영역이었던 한성과 성왕이 전사한 관산성이 아닌, 기문이 자리했던 남원 동부지역을 첫행보로 삼았다. 당시 백제는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sup>115)</sup> 신라로의 동진(東進)을 위해서는 백두대간을 넘었어야 했다. 전북 동부지역에는 진안고원의 옥십령, 운봉고원의 치재·여월치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무왕은 다른 지역이 아닌 운봉고원의 치재에 소재한 아막성을 공격했다. 즉 이 지역에는 백두대간의 동·서를 이어주는 교통로로서의 이점보다<sup>116)</sup> 더 우선시 되는 요인이 있었다. 이 요인은 운봉고원에 대

111) 대가야는 479년에 보국장군 본국왕을 받았다. 고구려는 413년 고구려왕(高句麗王) 낙안군공(樂安郡公), 484년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을 받았다. 백제는 372년 진동장군령낙랑태수, 416년 진동장군(鎭東將軍) 백제왕, 521년에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보다 높은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을 받았다.

112) 『일본서기』의 ‘반파(伴跛)’는 ‘뒤를 따라가는 절뚝발이’라는 뜻을 가진다. 『양직공도』의 ‘반파(叛波)’는 ‘반란의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명칭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백제의 철산지 장악을 들 수 있다. 전북 동부지역의 제철 유적 중에서 백제의 철산지였던 곳이 과반수에 가깝다. 백제는 반파에게 많은 철산지를 빼앗김에 따라 부정적 인식으로 보았다(곽장근, 앞의 책, 70쪽 참조).

113) 박천수, 앞의 책, 2018, 377쪽 참조.

114) 이희준, 앞의 책, 2016, 158쪽 참조.

115) 642년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한 이후, 성주인 김품석의 머리를 신라로 보내고 시신은 감옥 밑에 묻는 저주의 행위를 했다. 544년 관산성에서 전사한 성왕의 시신을 신라 궁궐 북청(北廳) 계단아래 묻었던 것을 되갚아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장창은, 앞의 책, 2020, 202~203쪽 참조).

116) 백두대간의 산줄기는 한성기의 백제가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고 난 이후에 동진하는 것을 막았다(곽장근, 「후백제 고도 전주와 외곽 방어체계」,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알리다』, 호남고고학회, 2018, 93쪽 참조).

규모로 밀집된 철산지와 자체 철기 생산능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확인된 무왕의 천도 계획은 다각도에서 이해해야 하겠지만, 철과 관련된 운봉고원의 이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백제는 옛 영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라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철의 상징인 운봉고원을 신라 동진(東進)의 기점으로 삼기 위해 익산 천도를 계획하고 아막성을 공격했다.

602년 정치세력이 아닌 재지 수장층으로 존속했던 기문은 아막성 전투에서 신라에 협력했다. 616년에 신라에 협력한 기문을 백제는 직접 지배했으며 남원지역에는 더 이상 고분군이 축조되지 않는다. 남원지역은 616년을 기준으로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백제의 영토로 속했다.<sup>117)</sup>

##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기문사의 대부분은 고고자료에 의해 검토되었다. 가야사 연구의 한계는 기문사에서도 확인되며, 문헌자료와 고분유적과의 종합적 검토는 필수사항이다. 앞으로도 남원지역 고분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관리 및 보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남원지역 고분군의 관리 및 보존은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을 제외하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산리 고분군은 봉토가 깎여 내려가고 있었고 건지리 고분군은 이정표가 없어 일반인이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속적인 발굴도 중요하지만 조사가 끝난 고분군의 관리와 보존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117) 616년 아막성 전투의 승리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아막성 전투 이후 점령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백제는 625년 경남 함양군으로 비정되는 신라의 속함성을 점령하고 이 외에 5성을 점령하게 된다. 경남 함양군으로 가는 진출 경로를 생각하면 교통로의 흐름상 아막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원 동부 지역에서 함양으로 이동하는 팔랑치를 통해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장창은, 앞의 책, 2020, 195쪽 참조).

## 참고문헌

### 사료

『삼국사기』  
『속일본후기』  
『양직공도』  
『일본문덕천황실록』  
『일본서기』  
『일본후기』  
『한원』

### 보고서

전영래, 「임실 금성리석곽묘군」, 『전북유적조사보고3』, 전라북도박물관, 1974.  
\_\_\_\_\_, 『南原 月山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9.  
한남대학교박물관, 『금산장대리고분군』, 충청남도금산군, 1992.

### 단행본

김규정,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성과」,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 2012.  
곽장근,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호남고고학회, 2021.  
\_\_\_\_\_,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_\_\_\_\_, 「후백제 고도 전주와 외곽 방어체계」,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알리다』, 호남고고학회, 2018.  
\_\_\_\_\_,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1999.  
김세기,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2003.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_\_\_\_\_, 『삼국시대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박순발,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 2012.  
박천수, 「출토 유물로 본 삼국시대 남원지역의 정치적 향방」,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시, 호남고고학회, 2014.  
\_\_\_\_\_,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_\_\_\_\_, 『가야토기 가야의 역사와 문화』, 2010, 진인진.  
백승옥, 『전북 가야의 역사적 뿌리를 복원하기 위한 전북지역 고대 정치세력과 가야 학술대회』, 전북사학회, 2019.  
유영수,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장수군, 2016.  
이도학, 「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과 그 역사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가야』, 호남고고학회, 2021.  
\_\_\_\_\_, 「장수 지역 가야, 단일 정치체 伴跋國으로 밝혀지기까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2021.  
이동희, 「섬진강유역의 고분」, 『백제와 섬진강』,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이희준,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 2008.  
\_\_\_\_\_,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16.  
전상학,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장수군 가야고분군의 현황과 가치』, 후백제학회, 2021.  
\_\_\_\_\_,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2017.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구조」,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천관우,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하승철, 「남원지역 가야고분의 구조와 변천」,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시, 2014.

### 학위논문

김기홍, 「삼국시대 운봉고원 고분축조집단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20.  
김동현, 「加耶地域 橫穴系 石室墓의 變遷과 背景」,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2015.  
김준식, 「가야 횡혈식 석실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9.  
문송식,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고분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21.  
박승규, 「加耶土器 樣式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10.  
박종욱, 「7세기 초 新羅와 百濟의 阿莫城 戰鬪」,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2.  
우애리, 「南原 東部地域 三國時代 古墳의 考古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21.  
우혜수, 「남원 '己汶國'의 성립과 발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5.  
조인진, 「전북 동부 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001.  
하승철, 「소가야 고고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15.

### 논문

곽장근, 「금강 상류지역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한국상고사학보』 66, 2009.  
\_\_\_\_\_,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 2, 2020.

- \_\_\_\_\_,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52, 2015.
- \_\_\_\_\_,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백제학보』 9, 20.
- \_\_\_\_\_, 「전북 남강 수계지역 석곽묘의 변천과정과 그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26, 1997.
- \_\_\_\_\_,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백제문화』 43, 2010.
- \_\_\_\_\_, 「전북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과 그 시론」, 『건지인문학』 20, 2020.
- \_\_\_\_\_,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2011.
- \_\_\_\_\_, 「전북지역 수혈식 석곽묘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호서고고학』 3, 2000.
- \_\_\_\_\_,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 2004.
- 김세기,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개념과 영역」, 『한국고대사연구』 94, 2019.
- \_\_\_\_\_, 「대가야 고대국가론」, 『한국고대사학회』 87, 2017.
- 김재홍,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 59, 2018.
- \_\_\_\_\_,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 78, 2012.
- \_\_\_\_\_, 위가야,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 5년 국제회의의 실상을 중심으로-」, 『사람』 58, 2016.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한국사연구』 117, 2002.
- 박천수, 「고고학을 통해 본 대가야사」, 『퇴계학과 유교문화』 42, 2008.
- \_\_\_\_\_, 「대가야권 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 39.
- \_\_\_\_\_,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 『한국상고사학보』 65, 2009.
- 백승욱,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 『백제학보』 30, 2019.
- \_\_\_\_\_, 2006: 「4~6세기 백제(百濟)와 가야제국(加耶諸國) -일본서기(日本書紀) 관련기사 검토를 중심으로-」, 『백제학회』 7, 2012.
- 백승충,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부산대학회』 19, 1995.
- 오동선, 「남원 아영분지 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호남고고학보』 117, 2020.
- 유영춘,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 轡, 蛇行狀鐵器, 鏝子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1, 2015.
- \_\_\_\_\_,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남원·장수 삼국시대 분묘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7, 2017.
- \_\_\_\_\_,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2018.
- 유철, 「전북지방 묘제에 대한 소고」, 『호남고고학보』 3, 1996.
- 이도학,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 2, 2020.

# 『삼국시대 남원지역 정치세력의 변화과정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이 글은 삼국시대 남원지역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접목을 통해 정치세력[기문]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많은 고고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졌다. 새롭게 확인되는 자료들은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종래 연구성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발표자의 논지를 이해하면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본서기』 계체기에서 기문(己汶)·대사(帶沙)를 두고 백제와 반파가 대립하는 기사를 통해 연구되었다.

- B-④ 3월 반파가 자탄(子呑)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와 이어서 봉후(烽侯)와 저각(邸閣)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했다. 또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아 마차해(麻且奚)와 추봉(推封)에 걸치게 했다. 사졸과 병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하여 백성을 약탈하고 촌읍을 노략질하였으니 흉악한 세력이 가해진 곳은 남겨진 것이 거의 없었다.
- B-⑤ 이 달 사도도(沙都嶋)에 이르러 반파인(伴跛人)이 (일본에) 한을 품고 독을 머금었으며, 강성함을 믿고 사납기가 이를 데 없음을 전해 들었다. 모노노베노무라지가 수병 5백 명을 이끌고 곧바로 **대사강(帶沙江)**으로 나아갔으며 저미문귀장군은 신라(新羅)를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 B-⑥ 여름 4월 모노노베노 무라지가 대사강에서 6일 동안 머물렀는데, 반파가 군사를 일으켜 가서 정벌했다. 옷을 벗기고 가지고 간 물건들을 빼앗고 막사를 모두 불태우자, 모노노베노 무라지 등이 두려워 도망해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여 문모라(汶慕羅)에 머물렀다. <문모라는 섬 이름이다>
- B-⑦ 10년(516년) 여름 5월 백제가 전부(前部)의 목협부마갑배(木狹不麻甲背)를 보내어 모노노베노 무라지 등을 기문(己汶)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고 이끌어서 나라로 들어왔다. 여러 신하들이 각각 옷과 쇠도끼·면포를 내어 국물(國物)에 더하여 조정에 쌓아놓고 은근하게 위로했으며 상과 복이 매우 많았다.
- B-⑧ 가을 9월 백제가 주리즉차장군을 보냈는데 모노노베노무라지를 따라 와서 기문의 땅을 준 것에 사례하였다. 따로 오경박사 한고안무를 보내어 박사 단양이와 교대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교대시켰다.
- B-⑨ “무릇 조공하는 사자는 늘 섬 구비[바다 가운데 섬의 굽은 해안을 말한다. 속칭 미사키(美佐祁)라고 한다]를 피하느라 매번 풍파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가지고 가는 물건이 젖어서 모두 상하여 보기 흉합니다. 가라의 **다사진(多沙津)**을 신들이 조공하는 나루길로 삼기를 청합니다.”라 하였다. (중략) (다사)진을 백제왕에게 내려 주었다. 이에 가라왕이 칙사에게 이르기를 “이 진은 관가를 둔 이래로 신의 조공하는 나루터였습니다. 어찌 갑자기 바뀌어서 이웃나라에 줄 수 있으며 처음에 봉해 주었던 것을 어길 수 있습니까?”라 하였다. 칙사 치치네 등은 이 때문에 바로 줄 수 없어서 큰 섬으로 되돌아 왔다가 따로 녹사를 보내어 결국 부여(백제)에게 내려 주었다.

= 제시된 기사에서 지칭하는 대사[帶沙], 대사강[帶沙江], 다사진[多沙津]은 동일한 지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동일한 사료에 시기차가 적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표기된 점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6호분**은 최근 재 발굴조사<sup>118)</sup>를 통해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고분은 전형적인 백제 석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의 계통을 연구자에 따라 백제·가야·신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락리 2호분[현 36호분]은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최근 발간된 보고서와 관련 연구자료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이 고분이 신라고분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3.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남원지역 가야계 고분군은 4~6세기로 편년되고 있다.**

**광평 목곽묘의 시기**는 4C 말 ~ 5C 1/4분기로 판단된다.

= 4세기대의 가야고분 자료 제시와 설명이 필요하다.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월산리고분군, 광평 목곽묘는 현재 행정구역과 조사기관·조사년도가 상이하여 구분되고 있지만 본디 하나의 지류에 축조된 고분군이다. 목곽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소가야양식으로 종래의 편년과는 차이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4. 남원지역의 고분유적은 53개소 180여기 이상의 유적이 분포하고 발굴조사 이뤄진 고분군은 14개소의 고분군이다. 고분 유적은 수계상으로 섬진강유역과 남강유역으로 구분된다. 서부지역인 섬진강유역에는 5개소의 유적이 분포하며 남강유역인 동부지역에는 9개소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 고고자료는 발굴조사에 따라 수량의 변화가 심하므로 유적수와 조사된 고분과 매장시설의 기수에 대한 확인 시점과 고고자료의 적절한 수량 표기가 필요하다.

5. **청계리 2호분 2·3호곽은 T자형의 배치형태를 보여 대가야양식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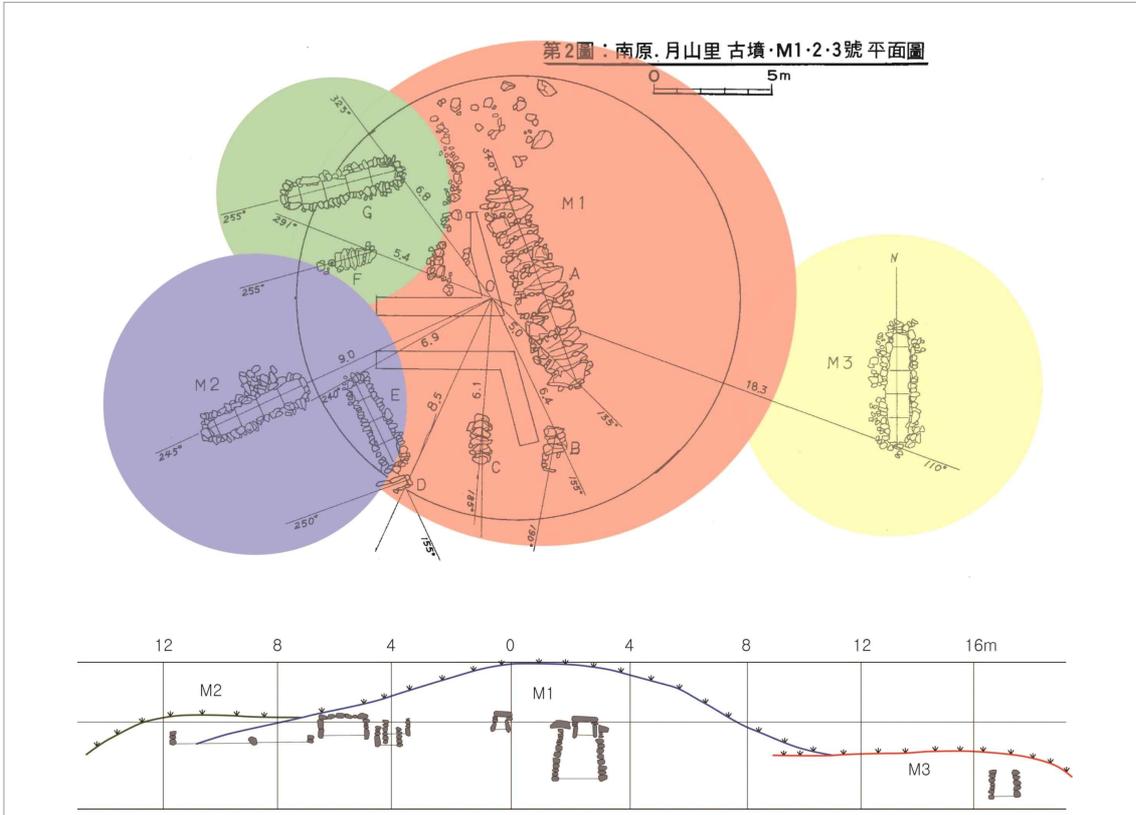
= 전북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고고자료 특히, 가야와 관련된 고고자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발간된 발굴보고서<sup>119)</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분구의 확장고와 매장시설의 선후관계, 주구 시설, 고분 규모[현재 조사된 가야고분군 중 최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의 경우 금관가야를 비롯한 여러 가야지역의 토기가 부장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6. 청계리에서는 대가야계 양식의 2호분 1호곽이 축조되는데 선행하는 2호·3호곽과 같은 봉토에 축조되어 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행정리와 청계리에서는 고분군 축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M2·M3호를 일부 파괴하고 다곽식인 M1-A를 축조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가야가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배층의 무덤인 고층이 자리한 고분군과 소규모 석곽묘가 확인되는 고분군의 비교가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월산리고분군의 고층은 봉토가 연접된 고분이며, 매장시설이 하나인 단곽식이다. 소형석곽은 층위상 후대에 축조된 양상이 확인된다.

118) 전북대학교박물관, 202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6호분』, 남원시.

11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1,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7. 순천 운평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는 5세기 말로 편년되고 남원 유곡리·두락리 1호분과 같은 시기로 편년 된다. 하동 흥룡리 출토품도 5세기 말의 대가야계 양식이다. 즉 5세기 말에 대가야와 기문은 섬진강 유역에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순천 운평리고분군은 섬진강유역이 아닌 남해안권에 자리한 유적이다. 하동 흥룡리고분군은 석곽에 눈썹형주구가 시설된 특징을 보이며, 매장시설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소가야와 관련된 유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제시된 자료가 필자의 논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메 모

---

1930년대 초반 학생운동가에서 사회주의자로의 성장 과정  
- 경성트로이카 학생부를 중심으로 -

김지수 / 전북대학교 박사과정

# 1930년대 초반 학생운동가에서 사회주의자로의 성장 과정

## - 경성트로이카 학생부를 중심으로 -

김지수(전북대학교)

---

### <목 차>

---

- I. 머리말
  - II. 가정 및 주변 환경을 통한 성장
  - III. 교내 독서회를 통한 성장
  - IV. 외부 사회주의 비밀결사와의 관계를 통한 성장
    - 1.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참여한 사례
    - 2.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교내 독서회에 참여한 사례
  - V. 맺음말
- 

## I. 머리말

학생운동가들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세력으로 떠올랐다. 학생들에게 광주학생운동은 1920년대 학생운동의 절정이었을 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를 민족운동의 주체로 자각시켰다. 광주학생운동은 주도 학생들 뿐 아니라, 운동의 양상과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20년대 활동했던 운동가들이 1919년 3.1운동의 기억을 안고 민족해방투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1930년대 초반의 학생들은 광주학생운동의 기억을 가지고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하였다.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주로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 주도되었고 사회주의 운동은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학생운동가들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하, 당재건운동)에 참여해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sup>1)</sup> 하지만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에서 학생운동가들은 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거의 조명받지 못하였다. 당재건운동이 아직 다 복원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연구는 재건조직의 활동상을 밝히는 데 치우쳐 질 수

---

1) 이준식은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적 노·농조운동이나 당재건운동에 투신한 활동가 가운데 상당수가 광주학생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거나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이준식, 「광주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성격」,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225~228쪽). 이에숙은 이재유의 당재건운동을 연구하면서, 경성트로이카 성원들이 20년대 후반 이래 독서회나 청년운동에 참여했음을 밝혔다.(이에숙, 「이재유그룹의 당재건운동(1933~36년)」,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148쪽) 그렇지만 학생운동가들이 어떻게 사회주의 운동에 발을 들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학생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체적·능동적 활동상을 그리는 작업은 사회주의 연구 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풍부하기에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위의 문제의식 하에서,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된 학생운동가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발을 들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성트로이카 학생부에 참여한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학생 개개인의 이력을 조사하였다. 경성트로이카는 1933년 후반부터 1934년 초까지 경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비밀결사이다.<sup>2)</sup>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표로 내건 이 사회주의 조직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 번째, 전국 중등학교의 약 절반이 집중된 교육의 중심지 경성에서 활동했다는 점<sup>3)</sup> 두 번째, 경성지역의 학교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 세 번째, 다수의 학생운동가들이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여 그들이 어떻게 사회주의 운동에 발을 디뎠는지,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사회주의자로 나아가기 시작한 계기들을 유형별로 묶어 각 장으로 정리해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성트로이카로 모이기 전까지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에서 학생운동가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논문에서 다루는 학생운동가의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공훈전자자료관,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 고려대학교도서관의 경성지방법원문서, 신문자료, 자료집 등이다. 새로운 자료는 아니지만, 기존연구에서 사회주의 비밀결사 활동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였기에 자료에서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재활용하였다.

## II. 가정 및 주변 환경을 통한 성장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지인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학생을 살펴보자. 자신의 가족, 친척의 영향을 받은 학생은 이종국, 이인행, 이분성이 있고, 지인으로 인해 사회주의에 발을 디딘 학생은 장병신이 있다. 차례대로 다루어보자.

이종국은 친누나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였다. 그의 친누나는 李鍾燾이다.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동덕여고보)를 다녔던 그녀는 학교를 다니면서 독서회<sup>4)</sup>를 통해 사회주의를 공부하였고 졸업 이후 노동운동을 위해 공장에 취직도 하였다.<sup>5)</sup> 즉 이종희는 의식이 투철한 사회주의자였다. 이종국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하였고 노동부에서 활동하였다.

이종희가 학교를 다니며 사회주의를 알아나가던 시절 이종국은 경성재동공립보통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1931년 8월 그는 동지를 모아 교내에 독서회를 만들었다.<sup>6)</sup> 독서회는 이종국이 사회주의 서적을 탐

2) 지면이 협소한 관계로 경성트로이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경성트로이카는 이재유를 중심으로 당대 활동가들(안병춘, 이현상, 변홍대, 남만희 등)과 만든 당재건 그룹이다. 경성트로이카는 노동부, 학생부, 농민부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였는데, 학생부문의 책임자는 최소복이었다. 경성트로이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길 바람(김경일, 『이재유 나의시대 나의혁명』, 푸른역사, 2007; 이에숙, 위의 논문, 1991;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 이에숙, 앞의 논문, 1991, 145쪽

4) 본 논문에서 나오는 독서회는 모두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연구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서회임을 밝혀둔다.

5)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373쪽.

6) 이종국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意見書」, 1937년 4월 1일, 63쪽~70쪽(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8, 1993); 「京高特秘 第400號 朝鮮共產黨再建設京城準備グループ事件檢舉ノ件」,

독하던 누나에게 영향을 받아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독서회는 여타 독서회처럼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이종국의 집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해당 독서회는 이종국이 졸업한 이후에도 유지될 만큼 구성원들의 사상적식이 향상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이종희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종국의 집에서 독서회가 자주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이종희가 동생들의 사상연구를 도왔을 것이다.

1932년 3월 이종국은 경신학교에 입학하였다. 보통학교를 졸업하면서 독서회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는 새로운 독서회를 시작하였다.<sup>7)</sup> 1933년 9월경 이종국을 포함한 경신학교 학생들은 교내에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독서회의 결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경신고보 독서회는 초기부터 경성트로이카의 지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국은 해당 독서회를 통해 경성트로이카 학생부에 소속되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인행과 이분성은 남매이다. 두 사람은 경성트로이카의 총책임자 이재유의 조카였다.<sup>8)</sup> 이재유는 자신의 조카를 사회주의운동에 끌어들이었다. 이인행은 보성고등보통학교(이하 보성고보)를, 이분성은 경성여자상업학교(이하 경성여상)를 다니고 있었다. 함경남도 삼수에서 오빠인 이인행이 먼저 상경해 1930년에 보성고보로 입학하였고, 2년 뒤 이분성은 경성여상에 입학하였다. 남매는 1932년 12월부터 감옥에서 출소한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인행과 이분성은 이재유와 독서회를 시작했다. 이재유는 그들이 사회주의 운동에서 일익의 담당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할 수 있게끔 사상을 교육하였다.<sup>9)</sup> 독서회는 이인행과 이분성을 사회주의자로 성장시켰다.

이후 이인행과 이분성은 이재유가 결성한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하였다. 오빠인 이인행은 최소복, 변우식과 학생부 트로이카를 결성하였다.<sup>10)</sup> 학생부 트로이카는 남자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독서회 결성을 지도하였다. 그는 경신학교, 양정고등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이하 중앙고보)를 맡았다.<sup>11)</sup> 이인행이 보성고보를 담당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sup>12)</sup>

여동생 이분성은 자신의 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그녀는 심계월<sup>13)</sup>과 함께 차소영, 박온(朴溫)을 끌

---

1937년 2월 19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12年)』, 16~18쪽).

7) 이종국에게 독서회를 넘겨 받은 김문현은 독서회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이후 경성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해 1936년 10월경 경농문예회를 조직하였다(「京高特秘 第400號 朝鮮共產黨再建設京城準備グループ事件檢舉ノ件」, 1937년 2월 19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12年)』, 16~17쪽). 즉 보통학교 시절 비밀독서회 활동 경험이 그가 경농에 비밀결사를 조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8) 이재유는 이인행과 이분성이 자신의 조카라고 인지했을 뿐, 촌수가 7촌인지 9촌인지 11촌인지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예심조서(예심 제1회)」, 1937년 11월 17일.(김경일, 앞의 책, 2007, 407쪽)).

9) 「京高特秘 第2410號 城大教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鮮内赤化工作事件 檢舉ニ關スル件」, 1934년 8월 31일, 102~103쪽

10) 부문별 책임자는 본인을 포함한 3인 1조의 하부트로이카를 만들었는데, 학생부문을 맡은 최소복은 이인행, 변우식과 함께 학생부 트로이카를 결성하였다. 최소복은 경성전기학교, 이인행은 보성고등보통학교, 변우식은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으로 모두 학생신분이었다. 최소복은 경성전기학교, 이인행은 보성고등보통학교, 변우식은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으로 모두 학생신분이었다.

11) 최소복은 경성전기학교·보성고등보통학교·배재고등보통학교·중등학교 그리고 변우식은 경성공업학교를 맡았다.

12) 이인행은 1930년 4월 보성고보에 입학하였다. 판결문에는 1934년 3월 보성고보를 졸업했다고 하였으나 보성고보가 5년제인 점을 감안하면 1934년 1월 18일 이재유 관련자로 검거이후 퇴학당한 것으로 보인다(「昭和11年 刑控 第438號 (이인행)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36년 11월 25일).

13) 심계월은 이재유의 독서회에 참여해 이분성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을 배웠다. 이분성과 같이 경성여상들 다니고 있던 그녀는 이분성보다 한 학년 위였다. 심계월이 삼수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이분성과는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낸 듯하다. 그녀는 고향에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품고 사회주의 서적을 읽어나갔다고 한다(「京東警高秘 第3311號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ノ左翼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8일, 『思想ニ關スル情報

어디에 1933년 9월 상순경 “공산주의 제도의 실현촉진을 위해 독서회를 조직”하였다.<sup>14)</sup> 독서회는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가지며 사회주의를 연구하였다. 10월 4일 독서회가 경찰에게 발각되었으나 경찰은 어린 학생들이 벌인 단순 사건으로 치부해 학생들을 훈방하였다.<sup>15)</sup> 이처럼 이인행과 이분성은 삼촌 이재유를 따라 사회주의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인에 의해 사회주의 조직에 참여하게 된 장병신을 다루겠다. 장병신을 사회주의 운동에 끌어들이는 지인은 최소복이었다. 장병신과 최소복은 1932년 9월경 경성에서 조우하였다.<sup>16)</sup> 만남 당시 장병신은 배재고등보통학교(이하 배재고보) 4학년이었고, 최소복은 경성에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소복은 1931년 11월 대구고보 맹휴로 퇴학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가 서울로 상경한 원인은 학업문제도 있었지만, 도피성으로 온 측면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경찰의 감시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 어려웠다.<sup>17)</sup>

장병신과 최소복은 고향에서부터 알던 사이였다.<sup>18)</sup> 재회한 둘은 가까이 지냈을 것이다. 힘든 타지에서 고향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이의 존재는 의지가 되는 법이다. 자연스럽게 최소복은 자신의 사상을 장병신에게 들려주었을 것이고, 장병신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도하였다.<sup>19)</sup>

장병신은 최소복과 사회주의 조직에 다가갔다. 그는 최소복을 따라 1933년 5월부터 정칠성(鄭七星)<sup>20)</sup>과 함께한 독서회에 참석해 사회주의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장병신과 최소복은 경성트로이카에도 참여해서, 최소복은 학생부 책임자, 장병신은 배재고보 교내 책임자를 맡았다. 학생부 트로이카가 학교를 배분할 때 최소복이 배재고보를 담당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장병신과 가까웠기 때문에 최소복이 배재고보 독서회를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처럼 장병신은 최소복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사회주의를 배웠고 경성트로이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종국, 이인행, 이분성, 장병신은 가족 등 가까운 이들로 인해 사회주의 활동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종국은 친누나 이종희, 이인행과 이분성은 삼촌 이재유, 장병신은 지인 최소복의 영향을 받았고, 인생의 경로를 바꾸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해 사회주의 운동에 기여할 수 있었다.

(昭和8年)』, 4쪽).

14) 경성여성 독서회 결성에 대해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京東警高秘 第3311號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ノ左翼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8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15) 「京東警高秘 第3316號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ノ左翼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11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16) 장병신과 최소복의 인연 및 장병신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京鍾警高秘 第1370號 私立商業學校生徒盟休事件ニ關スル件」, 1934년 2월 1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9年)』).

17) 최소복에 대한 내용은 뒤에 따로 다룸

18) 최소복과 장병신의 본적은 경상북도 대구이다. 게다가 일제자료에서도 장병신화 최소복이 경성에서 “해후(邂逅)” 했다고 표현하였다(「京鍾警高秘 第1370號 私立商業學校生徒盟休事件ニ關スル件」, 1934년 2월 1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9年)』, 2쪽).

19) 일제 자료에서도 장병신이 최소복의 지도 하에서 공산주의 의식을 배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京鍾警高秘 第1370號 私立商業學校生徒盟休事件ニ關スル件」, 1934년 2월 1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9年)』, 2~3쪽).

20) 정칠성은 최소복과 함께 1932년 1월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협의회에 참여했었다. 그는 1933년 4월 경성에서 조선일보 배달부로 일하다가 5월 변흥대의 권유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6월 이재유와 만났다(강만길·성대경, 앞의 책, 1996, 442쪽).

21) 자료에는 최소복이 1933년 전기학교 본과 2학년에 입학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지인인 정칠성(鄭七星), 이석면(李錫冕) 등과 교우해 공산주의 의식을 강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들과 사회주의 의식강화를 목적으로 독서회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장병신과 함께했을 가능성이 크다(「京高特秘 第2410號 城大教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鮮內赤化工作事件 檢舉ニ關スル件」, 1934년 8월 31일, 『警察情報綴(昭和9年)』, 51쪽).

### Ⅲ. 교내 독서회를 통한 성장

학교 내 독서회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으로 다가간 학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성트로이카 학생부 성원에서 이에 해당되는 학생은 장현근, 최소복, 김재선, 하명식 그리고 김양선이다.

장현근부터 보도록 하자. 1930년 경신학교에 입학하고서 언제부터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는 독서회에서 활동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장현근이 가입한 경신학교 독서회는 박노섭이 이끈 것으로 여겨진다. 박노섭은 1929년 조선공산청년회 학생부 후보학생이었으며<sup>22)</sup> 광주학생운동시기 서울시위에 참여하고 격문살포로 검거되기도 하였다.<sup>23)</sup> 게다가 성대반제동맹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sup>24)</sup> 즉 박노섭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학생이었다.

1931년 11월 9일 경신학교에서 맹휴가 발발하였다.<sup>25)</sup> 학생들은 학교가 부당하고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였다. 학교 측의 등교통보, 학생들의 수업거부, 정학 또는 퇴학 처분 등이 이어지다가, 12월 초순 경찰이 주동학생들을 체포하면서 맹휴는 끝이 났다.<sup>26)</sup> 12월 5일 체포된 이들 가운데 장현근(張鉉近)이 있었다.

해당 맹휴는 경신학교 독서회가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맹휴의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박노섭이 경신학교 학생 대표로 각 학년의 “의식분자”들을 모아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sup>27)</sup> 그가 회의에 부른 이들은 대부분 독서회원으로 생각된다. 11월 7일 러시아 혁명기념일에 맞춰 맹휴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장현근이 이러한 논의자리에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2학년이던 그는 맹휴의 주모자 가운데 한 명으로 체포될 만큼 열성적으로 맹휴에 임하였다고 보인다.

경신학교 독서회가 이후에도 계속 모임을 유지하였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장현근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교내 독서회를 통해 사회주의를 배우고 맹휴의 경험을 쌓은 그는 마침내 사회주의 조직인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동급생 이재덕, 후배 이종국, 김용잠, 김응봉과 함께 독서회를 결성하였다.<sup>28)</sup>

다음으로 분석해볼 학생은 최소복이다. 최소복은 대구고보에 다녔었고, 대구고보에는 사회주의 성격의 독서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는 1931년 5월말 맹휴 모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1931년 5월말 맹휴를 모의한 혐의로 대구고보 학생 몇몇이 검거되었다.<sup>29)</sup> 위의 맹휴는 잡지 『戰旗』를 읽어 무기정

22) 「京鍾警高秘 第1218號 不穩檄文撒布事件檢舉ノ件」,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2冊』, 1930년 2월 5일(송태은, 「1929년 서울지역 학생시위운동에서 사회주의 학생비밀결사의 역할」, 『서울과 역사』 96, 서울역사편찬원, 2017, 280쪽 재인용).

23) 「光州學生事件求刑 最高體刑十個月」, 『동아일보』, 1930년 2월 22일; 「各署의檢舉總計 現在九十餘人」, 『동아일보』, 1930년 3월 8일; 「八名에만起訴處分 廿五名은無罪免訴」, 『동아일보』, 1930년 3월 29일

24) 성대반제동맹의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 준비위원인 강약수는 일제의 만주침략을 규탄하고자 반전(反戰)격문을 준비하였고, 이를 박노섭에게 부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중에 일본 경찰의 검문을 받아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京本警高秘 第6683號 反戰檄文犯人檢舉ニ關スル件」, 1931년 9월 30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6年9月)』, 2-3쪽) 미수에 그쳤으나 성대반제동맹 관계자와 박노섭과 접촉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25) 1931년 11월에 발생한 경신학교의 맹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京東警高秘 第3072號 倣新學校生徒ノ動搖ニ關スル件」, 1931년 12월 9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6年)』).

26) 신문에 따르면 12월 5일 체포된 학생들은 장현근을 포함해 박노섭, 이교영, 김병삼, 최창식, 김신태, 나중렬로 전부 7명이다. 신문에는 박노섭이 이노섭으로, 최창식이 김창식으로 잘못 쓰여져 있다(「各處下宿을搜索 學生七名을檢舉」, 『조선일보』, 1931년 12월 6일).

27) 「京東警高秘 第3072號 倣新學校生徒ノ動搖ニ關スル件」, 1931년 12월 9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6年)』, 8쪽.

28) 자료상 1933년 9월에 경신학교 독서회가 결성되었다고 하나, 9월 이전에 독서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김용잠은 1934년 1월초 장현근의 권유로 독서회에 합류하였다(「意見書」, 1937년 4월 1일, 55·69쪽(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8, 1993, 143·172쪽)).

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한다. 『전기』는 일본 공산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잡지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했다.<sup>30)</sup> 이 잡지는 독서회원들 사이에서 회독(回讀)되다가 발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잡지를 읽다가 들킨 학생은 독서회원으로 생각된다. 맹휴모의는 동지의 학교복귀를 위해 추진되었을 것이다.<sup>31)</sup>

대구고보 독서회는 11월이 되어서 맹휴를 성공했다.<sup>32)</sup> 해당 맹휴는 밀정 노릇을 하던 학생을 교사가 감싸준 것이 원인이 되어 1931년 11월 9일에 발생하였다.<sup>33)</sup> 4학년 학생들은 밀정학생의 출학 또는 사과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단식(斷食)을 선언하였다. 학교 측은 맹휴에 참여한 학생들을 정학·퇴학 처분을 하였으며<sup>34)</sup> 당시 4학년이던 최소복은 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최소복은 정황상 대구고보 독서회에서 활동했던 것 같다. 그는 대구고보 시절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는 독서회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sup>35)</sup> 또한 퇴학 이후 최소복이 경찰의 주목을 받은 점은 위의 가정에 신빙성을 더한다. 대구경찰서는 사회주의 비밀결사가 움직였다고 생각되는 정황이 포착될 때마다 그를 검거하였다. 11월 대구고보 맹휴가 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회주의 선전 내용이 쓰여 있는 격문이 대구 곳곳에 뿌려졌다.<sup>36)</sup> 경찰은 범인을 색출하고자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였는데, 그 중 최소복이 있었다. 왜관으로 출장까지 가서 검거할 만큼 경찰은 그를 사회주의자로 점찍고 있었다.<sup>37)</sup> 또한 최소복은 1932년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예비검속이란 명목으로 잡히기도 하였다.<sup>38)</sup>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상상이 가능하다. 최소복은 대구고보 독서회에 가입해 사회주의와 가까워졌고, 11월 맹휴에 참여하였다. 그러다 11월 맹휴를 조사하던 경찰에게 그가 사회주의자임이 들켜 고초를 당하였다. 이를 증명할 직접적 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최소복의 행적과 주변의 사건들이 위의 가정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

어쨌든 경찰의 괴롭힘으로 최소복은 대구에서 머무르기 어려웠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서 편입준비를 시작하였다. 더불어 활동도 재개하였다. 최소복은 1932년 9월경 배재고보를 다니던 장병신과 재회해 그를 운동으로 끌어들이었다. 또한 그는 1933년 5월 정칠성(鄭七星) 등의 독서모임에 참석하며 경성의 사회주의자들 과 연결되었다. 마침내 경성전기학교로 편입에 성공한 최소복은 1933년 7월경 이병기(李丙驥)<sup>39)</sup>의 소개

29) 「大邱高普盟休計劃 主謀學生十名檢舉」, 『조선일보』, 1931년 6월 2일.

30) 『전기』는 1928년 5월부터 1931년 12월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전일본무산자예술동맹(全日本無産者芸術連盟)의 기관지였다.

31) 게다가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맹휴를 모의했던 학생 3명이 책임을 지고 자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大邱高普學生 十餘名無期停學」, 『조선일보』, 1931년 6월 9일). 이는 더 이상 희생자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으로 읽힌다. 자퇴한 3명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아마도 대구고보 독서회에서 활동한 학생들이었을 것이며 독서회의 안위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보인다.

32) 11월의 맹휴에서는 5월과 같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나, 발생 시기가 가까운 점으로 보아 독서회는 11월 맹휴에 개입했다고 여겨진다.

33) 밀정노릇하던 학생은 朴正復이다. 자신들을 염탐해 학교 측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박정복과 이야기하기 위해 따로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 이를 안 교사가 박정복을 감싸주었다고 한다(「大邱高普四學年生 百餘名突然盟休」, 『매일신보』, 1931년 11월 11일).

34) 학교 측은 1차로 4학년생 8명, 3학년생 13명, 2학년생 10명을 정학처분하였고(「登校만하고 授業은 不受」, 『매일신보』, 1931년 11월 14일) 2차로 2학년 4명 근신처분, 2학년 7명과 3학년 3명 4학년 3명을 정학, 4학년 1명을 퇴학처분하였다(「第二次로 十八名處分」, 『매일신보』, 1931년 11월 16일).

35) 「京高特秘 第2410號 城大教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鮮內赤化工作事件 檢舉ニ關スル件」, 1934년 8월 31일, 『警察情報綴(昭和9年)』, 51쪽

36) 「大邱高普에 檄文을 撒布」, 『동아일보』, 1931년 12월 5일; 「反帝同盟의 反戰檄文 學校와 軍隊에 雪飛」, 『조선일보』, 1931년 12월 6일

37) 「大邱署檢舉風 昨今依然繼續」, 『중앙일보』, 1931년 12월 8일

38) 「大邱署緊張 學生五名檢束」, 『중앙일보』, 1932년 4월 30일

39) 이병기는 1932년 2월 대구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으로 일본경찰에 검거되었다가, 이후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해 노동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33년 8월 용산공작주식회사 영등포 공장 노동자가 되어, 공장 내 노동조합을

로 이재유를 만나 경성트로이카에 가담하였다.<sup>40)</sup> 대구고보의 독서회와 맹휴의 경력은 최소복을 학생부문의 책임자이자 경성트로이카의 상위 조직원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김재선은 동덕여고보 학생이다. 그녀는 이관술이 검거된 이후 중단되었던 독서회에 참여하였다. 동덕여고보 교사 이관술은 1932년 10월 교내에 독서회를 결성했었는데, 연말에 그가 검거된 이후 독서회는 중단되었다. 독서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퇴학은 면했으나, 일부가 졸업해 학교를 벗어났기에 교내독서회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료가 필요하였다. 학교에 남은 독서회원 임순득, 김영원은 김재선을 동지로 맞이하였다.

김재선은 독서회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독서회원인 김영원과 동거하고 있었기에, 독서회의 입장에서 접근과 제안이 용이한 상대였다. 게다가 김재선은 김영원과 1931년 학급자치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교내 활동에 적극적인 믿음만한 친구였다. 동거인 김영원의 제안으로 그녀는 독서회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sup>41)</sup>

김재선을 비롯해 독서회원들은 교내 학급자치회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sup>42)</sup> 학급자치회는 1931년 4월경 만들어졌던 학생자치기구이다. 형성초기부터 교사들 사이에 찬반이 분분했던 학급자치회는 채 2년이 되지 않아 해체된 것 같다.<sup>43)</sup> 학생들은 학급자치회 재결성에 노력하였고, 독서회는 여기에 참여하였다.<sup>44)</sup>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급자치회를 부활시켰다.<sup>45)</sup> 그런데 학교 측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33년 7월 1일자로 4학년 임순득과 김영원을 퇴학조치하였다. 학교는 올초 이관술과 관련해 그녀들이 수사를 받은 것을 꼬투리 잡았다. 이 부당한 조치는 동덕여고보 학생들의 분노를 샀고 맹휴를 불렀다.

김재선은 임순득, 김영원과 함께 학교의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다.<sup>46)</sup> 7월 3일 임순득과 김영원은 오전 조회시간에 교실로 들어와 자신들의 퇴학사실을 밝히며 친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김재선은 그들의 연설에 적극 동조하며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7월 5일 2, 3, 4학년을 대표하는 학생들은 교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맹휴를 개시하였다. 하지만 임순득과 김영원의 퇴학은 막지 못하였

---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강만길·성대경, 앞의 책, 1996, 334쪽).

40) 「예심조서(예심 제1회)」, 1937년 11월 17일(김경일, 앞의 책, 2007, 424쪽; 이재유에게 최소복을 소개한 사람은 자료마다 다르다. 위의 자료에서는 이병기, 다른 자료에서는 9월 중순 정철성이 소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京高特秘 第2410號 城大教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鮮内赤化工作事件 檢舉ニ關スル件」, 1934년 8월 31일, 『警察情報綴(昭和9年)』, 51쪽). 본고에서는 이재유의 예심조서 진술을 따랐다. 경성트로이카에서 정철성, 이병기는 노동부문, 최소복은 학생부문에서 활동하였다.

41) 임순득은 1933년 4월 그녀에게 『인간일생의 경제학(人間一生ノ經濟學)』 등 사회과학 서적을 읽기를 권유하였다(「京東警高秘 第215號 同德女高普ノ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4년 1월 2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9年)』, 4쪽.)

42) 학급자치회 재결성에 대한 내용과 1933년 7월 맹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들을 주로 참고해 정리하였다(「京鍾警高秘 第1963號 同德女子高普生ヲ以テスル讀書會檢舉ノ件」, 1933년 2월 20일, 『思想ニ關スル情報(警察)(昭和8年)』; 「京鍾警高秘 第8476號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動搖ニ關スル件」, 1933년 7월 3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動搖ノ件」, 1933년 7월 5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京鍾警高秘 第8476號ノ2 同德女子高普校生徒ノ動搖ニ關スル件(續報)」, 1933년 7월 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京鍾警高秘 第8476號ノ6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動搖ニ關スル件(續報)」, 1933년 7월 12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京東警高秘 第215號 同德女高普ノ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4년 1월 2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9年)』; 「同德女高普 四年生動搖」, 『매일신보』, 1933년 7월 4일).

43) 아마도 학급자치회 결성을 지지했던 이관술의 수감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44) 김재선과 김영원은 과거 학급자치회의 일원이었고, 임순득은 이화여고보 맹휴를 주도할 만큼 학내문제에 적극적이었다.

45) 4학년 급장이 대표로 교사를 찾아가 자치회 개최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하였다. 교내에 지지해줄 교사가 없다고 느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급자치회를 결성해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였다.

46) 7월 3일 임순득과 김영원은 오전 조회시간에 교실로 들어와 자신들의 퇴학사실을 밝히며 친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김재선은 이들을 돕다가 학교

고, 김재선은 정학처분을 받았다.

학교에는 김재선만 남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회주의 서적을 놓지 않았다. 독서회 선배이자<sup>47)</sup> 경성트로이카 여학생 책임자인 이경선이 그녀를 불러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숙명여고보) 학생들과 함께 독서회를 하도록 제안했다.<sup>48)</sup> 김재선은 이들과 함께 경성트로이카에 가담해 동덕여고보에 독서회 조직을 시도하였다.<sup>49)</sup> 이처럼 독서회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의 길로 나간 그녀는 경성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 조직에 이르렀다.

네 번째로 다룰 학생은 1930년 중앙고보에 입학한 하명식이다. 그의 행적을 검토해 보면, 하명식이 중앙고보의 독서회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50)</sup> 그는 3학년 여름방학에 고향 고성에 내려가 친구를 만났다.<sup>51)</sup> 서로의 집이나 혹은 근처 해안에서 친구를 만난 하명식은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명식은 친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침까지 알려주었다. 동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성읍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동감한 친구와 함께 사회주의 운동의 선두에 서기로 결의하였다. 하명식은 독서회의 행동지침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인다. 독서회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동지를 확보하는 작업은 중요하였고, 이는 고향에 가서도 수행해야 하는 일로 간주되었다.<sup>52)</sup>

당시 하명식이 가입한 독서회에 대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1933년 6월에 결성된 교내 독서회에 참여하였다. 이 독서회는 경성트로이카와 연결된 독서회였다. 독서회를 통해 사회주의 의식을 길러온 하명식은 마침내 경성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 조직과 만났고 트로이카 학생부 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sup>53)</sup>

마지막으로 다룰 학생은 경성공립농업학교(이하 경농)의 김양선이다. 1930년 12월 “좌익분자” 李俊秀는 교내에 조직(이하 이준수그룹)을 결성하였다.<sup>54)</sup> 당시 2학년이던 김양선은 이준수그룹에 참여하였다.<sup>55)</sup> 그런데 이준수그룹은 얼마지나지 않아 교내의 다른 비밀결사와 통합하였다.

경농에는 이준수그룹 외에 두 개의 비밀결사가 더 있었다. 이준수그룹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무궁화(無窮花)와 1928년부터 있었던 흑친의대(黑襟衣隊)이다.<sup>56)</sup> 세 비밀결사는 1930년 12월부터 통합 논의를

47) 이경선도 임순득, 김영원과 함께 이관술이 지도하는 독서회에 참여했었고, 1933년 초 동덕여고보를 졸업하였다.  
48) 「소화17년O제34호(김재선 등)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43년 10월 25일  
49) 김재선은 1933년 12월 초순 이경선에게 교내에 독서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받았다(「京東警高秘 第215號 同德女高普ノ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4년 1월 2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9年)』).  
50) 하명식의 전반적 활동에 대해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昭和14年 刑公 第2148號(하명식 등)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40년 6월 28일; 「京高特秘 第58號 秘密結社民族文學硏究會等檢舉送局ニ關スル件」, 1940년 1월 11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15)』, 4쪽).  
51) 하명식이 만난 친구는 함재순(咸在淳)이다. 둘은 1915년생이며 강원도 고성이 본적이다.  
52) 다른 독서회와 비교해보자. 1933년에 결성된 중앙고보 독서회의 활동사항 가운데 하계휴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지침이 있다. 독서회는 고향에 내려가 지방청년·노동자·농민 등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이들을 좌익으로 지도하도록 회원들을 격려했다. 게다가 독서회원들은 하계휴가 중 도시 출신자는 도시 생활 및 대립관계, 농촌출신자는 농촌경제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京高特秘 第442號ノ1 秘密結社中央高普反帝運動全校オルグ委員會事件檢舉ニ關スル件」, 1935년 5월 22일, 『警察狀報(昭和10年)』, 35~36쪽).  
53) 하명식은 학기시험 답안지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학교생활에 대입하며, 자본가의 공장인 학교가 직공인 생도의 고향을 짜서 흡입한다는 식으로 글을 써냈다. 이 사건으로 그는 1933년 12월 유시퇴학(諭示退學) 처분을 받았다. 하명식이 마르크스 계급이론을 접목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의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54) 경찰이 이준수를 “좌익분자” 라고 지칭한 것 이외에, 그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京高特秘 第2410號 城大教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鮮内赤化工作事件檢舉ニ關スル件」, 1934년 8월 31일, 『警察情報綴(昭和9年)』, 49쪽).  
55) 경농의 독서회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경성동대문경찰서, 「의견서」, 1932년 5월 2일, 『한민족 독립운동사자료집』 55, 국사편찬위원회, 2002).

진행하였고, 193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진 이후 통합하였다.

통합된 단체를 주도한 것은 이준수였다. 이준수의 주도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었으며<sup>57)</sup> 단체의 중앙집행 위원장을 이준수가 맡았다. 조직의 이름은 철기단(鐵騎團)으로 정하였다. 쇠와 같이 공고하고, 기마(騎馬)와 같이 민첩한 단체라는 의미였다.<sup>58)</sup> 이준수의 발의에 따라 부서는 내정부(內政部), 경제부(經濟部), 외교부(外交部), 교도부(敎導部), 군찰부(軍察部), 과학부(科學部)를 설치하였다.<sup>59)</sup> 이 중 과학부와 외교부를 주목해보자. 과학부는 사회주의 서적을 연구할 것임을. 외교부는 철기단이 학교 밖 세력과 연계를 구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sup>60)</sup> 즉 이준수가 철기단을 사회주의 성격의 독서회로 만들어, 외부 사회주의 비밀결사 혹은 다른 학교와의 연계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고 이준수그룹은 철기단에 등을 돌렸다. 이준수가 조직 회의에서 불평을 터뜨리고 탈퇴한 것을 시작으로,<sup>61)</sup> 김양선 등 이준수계 조직원들은 철기단을 나왔다. 아마도 조직 간 성향 차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표는 같으나, 이준수는 사회주의 성향이었던 반면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sup>62)</sup>

이후에도 김양선은 이준수그룹에 계속 남았다. 이준수그룹은 명칭을 바꿔가며 조직을 유지하였다. 이들은 1931년 11월 11일 우리학우회(我友學友會)로 조직명을 삼았다가 사회과학연구회로 바뀌었고 1933년 4월에는 독서회라 하였다.<sup>63)</sup>

1930년부터 이어져온 독서회는 남만희에 의해 경성트로이카와 연결되었다.<sup>64)</sup> 남만희는 1933년 6월 중순 경농 부근 중국요리점에서 경농 독서회 책임자를 만나, 독서회를 반제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sup>65)</sup> 이후 경농의 독서회는 반제·반전운동을 위한 반제부로 전환하고, 남만희가 이재유에게 반제부를 인계하면서 경성트로이카 학생부에 소속되었다.<sup>66)</sup> 이처럼 김양선은 1930년 교내에서 결성된 사회주의계 독서회에

56) 무궁화는 “조선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자 조선국화 무궁화를 따서 조직명을 지었다고 한다(경성동대문경찰서, 「심종신 심문조서(제2회)」, 1932년 4월 20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국사편찬위원회, 2002). 후친의대는 이탈리아의 검은셔츠당을 모방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광주학생운동시기 발발한 1929년 12월 11일의 학내맹휴 과정에서 활약한 듯하다(「靑涼里農業學校四名에勸告退學」, 『조선일보』, 1930년 2월 10일; 「農校生二名 東囂에引致」, 『조선일보』, 1930년 3월 12일).

57) “...이준수가 먼저 기립하여 모두 집합하였으니 지금부터 회를 개최한다면서...” (경성동대문경찰서, 「염치대 신문조서」, 1932년 4월 18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국사편찬위원회, 2002).

58) 경성동대문경찰서, 「한인택 신문조서」, 1932년 4월 16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국사편찬위원회, 2002

59) 내정부장은 단체 내부를 관리, 외교부장은 외부와의 교제, 교도부장은 문맹자의 교양지도, 군찰부장은 단원의 체육훈련, 과학부장은 사회과학을 연구를 담당하였다(경성동대문경찰서, 「한인택 신문조서」, 1932년 4월 16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국사편찬위원회, 2002). 경제부의 경우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경성동대문경찰서, 「崔錫圭 신문조서」, 1932년 4월 19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국사편찬위원회, 2002).

60) 이준수 그룹원이었던 김양선은 외교부에 소속되었다.

61) 경성동대문경찰서, 「沈鍾農 신문조서(제2회)」, 1932년 4월 20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국사편찬위원회, 2002

62) 이준수 조직이 빠진 이후 철기단의 기세는 침체되었고, 소적대(蘇拓隊)로 조직명을 바꾸며 활동을 재기하려 했다. 소적대는 대장, 학부장, 병부부장, 법무부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철기단에서 보였던 몇몇 부서(과학부, 외교부)는 빠진 채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소적대의 조직구조에는 철기단에서 보였던 사회주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63) 조직이름의 변천 과정은 무언가 내부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지만, 현재로서 독서회가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京高特秘 第2410號 城大教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鮮內赤化工作事件檢學ニ關スル件」, 1934년 8월 31일, 『警察情報綴(昭和9年)』, 49-50쪽.

64) 남만희는 이재유와 만나기 전부터 무명의 반제그룹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가, 이재유가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하자 그와 손을 잡고 경성트로이카의 반제부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65) 남만희와 접선한 독서회 책임자는 신해갑(幸海甲)이다. 신해갑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나서는 김양선이 남만희와 연락을 이어갔다(「國際共產黨 豫審結定全文(七) 權榮台等三十四名」, 『동아일보』, 1935년 8월 31일).

66) 「京高特秘 第400號 朝鮮共產黨再建設京城準備グループ事件檢學ノ件」, 1937년 2월 19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12年)』, 5쪽

서 활동하다가 1933년 6월 남만희를 통해 경성트로이카에 흡수되면서 경성트로이카 조직원이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교내 독서회에서 시작해 사회주의 조직까지 이른 학생들을 살펴보았다. 경성트로이카 학생부에서 경신학교 장현근, 전기학교 최소복, 동덕여고보 김재선, 중앙고보 하명식, 경농 김양선이 이에 해당되는 조직원이었다.

## IV. 외부 사회주의 비밀결사와의 관계를 통한 성장

### 1.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참여한 사례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직접 가담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사례도 있다.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한 학생들 중 任淳得과 柳榮京이 그러하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사회주의 비밀결사와 연을 맺었는데, 해당 조직은 고려공산청년회재건설준비위원회(이하 공청재건위)였다. 공청재건위는 1930년 11월 초순 공산청년회 재건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정관진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sup>67)</sup>

먼저 임순득의 참여과정을 살펴보자. 1929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이화여고보)에 입학한 그녀는 1931년 6월 학교 선배들로부터 공청재건위 가입을 제안 받았다. 임순득의 학교 선배는 崔福順과 趙淑顯이었다. 최복순<sup>68)</sup>은 공청재건위에서 여자 노동부를 맡고 있었으며, 조숙현은 교내 독서회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sup>69)</sup> 조숙현은 독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학년 아래 임순득을 끌어들이었으며, 최복순과 함께 임순득을 공청재건위에 가입시켰다. 조숙현은 자신보다 한 학년 아래이나 ‘열렬한 독서가였으며 능변가’였던 그녀를 눈여겨 본 듯하다.<sup>70)</sup>

임순득이 공청재건위에 가입한 다음날, 이화여고보에 독서회가 조직되었다.<sup>71)</sup> 독서회에는 임순득, 조숙현을 비롯해 朴福壽, 金昌姬가 참여했다. 임순득을 제외하곤 모두 4학년이었다. 참여한 이들은 독서회를 준비한 조숙현이 모은 학생인 듯하다.

독서회는 곧바로 맹휴를 논의하였다. 독서회에서 교장의 횡포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맹

67) 이운혁(李雲赫), 송도호(宋道浩), 정관진(丁寬鎭), 허정숙(許貞淑)은 당재건을 목적으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와 고려공산청년회재건설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가운데 공청재건위는 관련 경력이 있던 정관진이 맡은 것으로 추측된다. 정관진은 1929년 1월 서울과 조선공산당재조직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청년운동부의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1929년 3월 조선학생전위동맹 결성을 주도했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장석홍, 「조선학생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68) 최복순은 광주학생운동시기 1930년 1월의 연합시위를 이끈 이화여고보 학생이었다. 당시 4학년생으로 기독교학생회 회장이었던 그녀는 작년 12월 시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며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최복순은 다른 여학교 학생들을 모아 시위를 추진하였으며, 남학생들과 논의해 연합시위를 계획하였다. 1930년 1월 15일 학생들은 시위운동을 성공하였으나, 최복순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김성민, 앞의 책, 2013, 299-316쪽).

69) 조숙현은 고보시절 함께 동거했던 최복순에 의해 공청재건위를 접하였고, 1931년 5월 15일 공청재건위에 가입하였다(「京高秘 第8094號 ソウル系共産黨再建設計劃檢擧ノ件」, 1931년 9월 7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6年9月)』; 「京西高秘 第4124號ノ6號 私立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盟休ニ關スル件」, 1931년 9월 7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6年9月)』, 18~19쪽).

70) 이화여고보 동문인 전숙희의 회상을 통해 임순득의 활달하고 진취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참고할 책은 다음과 같다(전숙희, 「우정과 배신」, 『문학, 그 고뇌와 기쁨』(전숙희 문학전집1), 동서문화사, 1999).

71) 임순득이 비밀결사에 가입한 시기가 6월 15, 16일경이고 독서회를 만든 날이 6월 16, 17일경이라고 한다(「京高秘 第8094號 ソウル系共産黨再建設計劃檢擧ノ件」, 1931년 9월 7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6年9月)』, 19쪽).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임순득의 가입 직후 독서회가 결성된 듯하다.

휴를 일으킬 적기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독서회원들은 이에 공감하였다. 독서회 조직 직후 맹휴를 계획하였다는 사실은 독서회가 맹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독서회가 맹휴를 준비하자 공청재건위는 이를 지원하였다. 공청재건위 여학생부 책임자인 李貞順의 지시에 따라 최복순은 진정서 작성을 도왔다. 독서회에 공청재건위 소속원인 임순득, 조숙현이 있었기에 당연한 조치였다. 준비과정을 도운 것은 공청재건위 뿐만이 아니었다. 중등학교 교사 咸秉業이 독서회의 고문역할을 하였다.

함병업은 이화여고보에서 국어교사를 하다가 해직된 후, 중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sup>72)</sup> 맹휴를 결심한 이화여고보 독서회원들은 그를 찾아갔다고 한다.<sup>73)</sup> 함병업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도왔다. 그는 진정서에 현 교육제도를 철폐하라는 항목을 추가하라고 학생들에게 제안했으며, 매체를 이용해 여론을 끌어들이야 맹휴에 유리하다고 조언하였다. 함병업이 진정서를 검토하면서 6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맹휴가 25일로 늦춰지기도 하였다.

1931년 6월 25일 정오가 되자 이화여고보 학생 2·3·4 학년 백 여 명이 맹휴를 선언하였다.<sup>74)</sup> 임순득은 학생대표로 단상에 올라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학생들은 종교 자유권, 교원 4인 배척, 교수시간 6시간 요구, 현 교육제도 반대 등을 학교에 요구하였다.<sup>75)</sup> 학생들을 이끌던 그녀는 맹휴의 주동자로 체포되었고, 공청재건위와 관계도 드러나 고초를 겪었다.

이후에도 임순득은 동덕여고보에 편입해 교내 독서회에 가입하였다. 동덕여고보 독서회는 사회주의 서적을 다루었고 동교 교사 이관술의 지도를 받았다. 독서회를 결성할 무렵 이관술은 조선반제동맹 경성지방준비위원회(이하 반제동맹경성준비위)에 참여하였고, 독서회는 반제동맹경성준비위의 하위조직이 되었다.<sup>76)</sup> 즉 임순득은 독서회를 통해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일원이 되었다. 임순득이 반제동맹경성준비위와 연결되면서 그녀의 친오빠 임택재도 반제동맹경성준비위와 이어졌다.<sup>77)</sup>

연말까지 계속되던 독서회는 이관술이 검거되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듯하다. 임순득 등 남은 독서회원들은 4학년 김재선을 동지로 끌어들이며 독서회 활동을 이어나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1933년 7월 1일자로 임순득은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으며 독서회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학교의 조치는 교내 맹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끝내 결과를 뒤바꿀 수 없었다. 그렇게 임순득은 두 번째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퇴학 이후 임순득은 무엇을 하였을까. 그녀의 친오빠를 통해 퇴학 직후의 행적을 추측해보자. 1932년 9

72) 함병업은 반종교적태도로 이화여고보에서 해직되었다고 한다. 이화에서 재임당시 그는 빈부의 격차가 심한 현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말로 학생들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존경을 받았던 교사 함병업은 사회주의 서적을 빌려줄 만큼 학생들과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73) 이화여고보 맹휴 과정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京西高秘 第4124號ノ6號 私立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盟休ニ關スル件」, 1931년 9월 7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6年9月)』).

74) 신문기사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동맹휴학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나(「梨花女高普 學生突然盟休」, 『동아일보』, 1931년 6월 26일), 당시 이화여고보 맹휴에 참여한 전숙희의 회상에 따르면 오전수업을 마치고 정오부터 시위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75) 「梨花女高普 三百名同盟休學」, 『조선일보』, 1931년 6월 26일; 전숙희, 「감방 생활도 해보고」, 『문학, 그 고뇌와 기쁨』(전숙희 문학전집1), 동서문화사, 1999

76) 1932년 11월 중순 조정래, 이순근, 이관술은 반제 운동 중 학생부의 운동통일을 위해 필요한 기관으로 조선반제동맹 경성지방준비위원회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1932년 12월 중순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태평양연안제국반제국주의민족대표자회의에 메시지 준비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고(김경일, 「1930년대 전반기 서울의 반제 운동과 노동 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4, 한국사회사연구회, 1992, 201~209쪽; 박한용, 「경성제대 반제동맹 사건 연구」,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2012, 172~188쪽).

77) 반제동맹경성준비위의 조정래는 임순득을 통해 그녀의 오빠인 임택재와 만나 조직에 끌어들였다. 임택재는 학생부를 맡아 중등학생과 전문학생을 상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京東警高秘第158號 朝鮮反帝同盟京城地方組織準備委員會事件檢舉ニ關スル件」, 1933년 3월 9일, 18쪽).

월말부터 남만희와 함께 반제운동을 해온 임택재는 1933년 7월 중순경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동덕여고보에서 조직원을 획득하겠다는 뜻을 동지들에게 밝혔다고 한다.<sup>78)</sup> 따라서 임순득은 오빠를 따라 남만희의 반제조직과 연결된 듯하다.<sup>79)</sup> 남만희의 반제조직이 이재유와 제휴하면서 그녀는 경성트로이카 성원이 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공청재건위 관련자인 유영경을 살펴보자. 제2고등보통학교(이하 제2고보) 학생이던 그는 조선학생전위동맹의 간부와 접선하면서 공청재건위와 연결되었다.<sup>80)</sup> 조선학생전위동맹은 1931년 2월 공청재건위 남자 학생부 책임자에 의해 부활된 학생비밀결사였다. 광주학생운동시기 서울시위를 성공시켰던 이전 전위동맹처럼, 공청재건위의 전위동맹도 학생운동의 중심체를 꿈꾸었다. 전위동맹은 각 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유영경은 조직원이 되었다.

전위동맹 간부의 지도를 받으며 유영경은 교내 독서회 결성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독서회는 제2고보에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화여고보 맹휴를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공청재건위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유영경은 관계자로 조사받았으나 단순 가담자로 처리되어 퇴학을 면한 듯하다.

그럼에도 유영경은 교내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다.<sup>81)</sup> 1931년 9월 자신이 소속되었던 제2고보 독서회<sup>82)</sup>가 성대반제동맹에 의해 반제부로 전환되자, 유영경은 반제부 산하에 독서회를 조직하였다.<sup>83)</sup> 그는 독서회에서 의식 있는 학생을 키워 반제부에 참여시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성대반제동맹의 관련자로 검거되면서 독서회는 유영경의 손을 떠났다.

마침내 제2고보에서 퇴학당한 유영경은 1933년 배재고보에 편입하였다. 일련의 사건들로 고초를 겪었으나 그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배재고보 4학년으로 편입한 이후 유영경은 경성트로이카 학생부에 참여하였으며, 12월 8일에 일어난 배재고보 맹휴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공청재건위의 전위동맹에서 시작해 경성트로이카 학생부에 가입하기까지 그는 당대 여러 사회주의 비밀결사와 얽히며 활동해왔다.

앞서 말했듯 임순득과 유영경은 정관진이 주도하던 공청재건위의 공청원 또는 전위동맹원이 되었다. 공청재건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이들은 공청재건위가 파괴된 이후에도 살아남아 다른 사회주의 비밀결사와 잇달아 연계하였다. 퇴학도 불사하고 임순득과 유영경은 경성트로이카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78) 「權榮台等三十四名 豫審結定全文 (六)」, 『동아일보』, 1935년 8월 30일

79) 일제의 문서를 보면 임순득은 동덕여고보가 아닌 경성여상 관계자로 등장한다. 이는 임택재의 발언과 상충된다. 그녀가 경성여상에서 활동한 것인지는 아닌지는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80) 전위동맹 및 당시 유영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京高秘 第8094號 ソウル系共產黨再建設計 劃檢擧ノ件」, 1931년 9월 7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6年9月)』).

81) 전위동맹의 와해된 이후 유영경은 반제격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는 1931년 7월 홍병모(洪炳模)에게 반전반제 격문을 배포해 줄 것을 부탁 받았다. 홍병모는 잡지 『이러타』의 기자 최봉식의 지도 하에 만보산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반전반제 투쟁을 준비하였고, 알음알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 관련 격문배포를 부탁하고 있었다. 홍병모가 유영경을 찾아온 것은 최봉식이 그를 추천해서였다. 관련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京鍾警高秘 第6068號ノ2 萬寶山事件ニ關スル檄文撒布關係者檢擧ノ件」, 1932년 6월 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7年)』.; 「各種運動情況, 昭和7年 下半期後ニ於ケル重要事件 檢擧, 萬寶山事件ニ關スル檄文撒布犯人 檢擧事件ノ概要」, 『昭和9年3月 治安情況』).

82) 제2고보 독서회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는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영경이 전위동맹의 지도하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독서회가 없던 점을 상기해 볼 때 7~9월 사이에 독서회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83) 성대반제동맹은 1931년 엠엘계라 지칭되는 사회주의 조직에 의해 결성된 학생비밀결사이다. 성대반제동맹은 경성지역의 각 학교에 반제부를 조직할 목적으로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라는 준비기관을 결성하였다. 제2고보 박승민은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반제부 조직을 결의하였고, 다음 날 회원들을 모아 독서회를 반제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독서회가 반제부로 전환되자 유영경은 1931년 9월 중순경 유영경은 전주은(全柱殷), 이성로(李性魯), 정재영(鄭在瑛) 등과 독서회를 만들었다. 성대반제동맹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와 자료를 참고하였다(박한용, 앞의 논문, 1991; 「城大學生ヲ中心トスル共產黨ヤチエーカ反帝部, 讀書會並赤友會 檢擧概況」, 1931년 11월, 『조선문제자료총서』 7, 71쪽~72쪽).

## 2.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교내 독서회에 참여한 사례

사회주의 비밀결사와 연결된 교내 독서회에 참여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인물은 변우식, 장현진, 이경선이다. 이 중 변우식과 이경선은 경성트로이카 학생부를 이끌어간 주요 조직원이었다.<sup>84)</sup> 이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차례대로 살펴보자.

제1공립고등보통학교(이하 제1고보)에 입학한 변우식은 오성세그룹의 영향 하에 생긴 독서회에 가입하였다. 오성세그룹은 1930년 5월 만주에서 국내로 잠입한 오성세가 공청 재건을 위해 만든 준비 그룹을 지칭한다.<sup>85)</sup> 오성세그룹에 제1고보 졸업생 孫明燮이 소속되어 있었다. 손명섭은 자신의 후배 朴容善에게 교내 독서회 조직을 제안하였다.<sup>86)</sup>

제1고보 독서회는 1931년 6월경 결성되었다. 1932년 1월 기준 총 4그룹으로 구성될 만큼 독서회에 많은 학생이 참가하고 있었고 변우식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독서회의 조직시기는 오성세그룹이 와해된 이후이나<sup>87)</sup> 독서회의 결성시기 그리고 독서회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염두하면, 독서회는 오성세그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오성세그룹이 남긴 제1고보 독서회는 맹휴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sup>88)</sup> 1932년 2월 26일 변우식을 포함한 4학년 학생들은 교련수업을 반대하며 교실을 박차고 나오며 맹휴가 시작되었다.<sup>89)</sup> 경찰이 주동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독서회가 발각되었고, 오성세그룹과의 관련성도 밝혀졌다.

제1고보에서 퇴학당했음에도 변우식은 사회주의 운동을 해나갔다. 1932년 4월부터 협성실업학교 학생을 끌어들이며 독서회를 결성하였으며, 8월부터 제1고보 동기와도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다.<sup>90)</sup> 1932년 10월부터는 반제동맹의 결성에 참여하였다.<sup>91)</sup>

84) 경성트로이카 학생부는 남자중등학교와 여자중등학교 책임자를 따로 두었다. 남자중등학교는 최소복이, 여자중등학교는 이경선이 맡았다. 학생부 책임자 최소복은 학생부 트로이카를 만들었는데, 변우식은 학생부 트로이카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학생부 트로이카는 남자 중등학교를 나눠 맡았다.

85) 오성세의 활동은 서울상해파(재건설파, 불세비키 그룹 등)의 당재건운동으로 연구되었다. 그는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이하, 당준비회)의 간부이자 고려공산청년회재건설준비회(이하 공청준비회) 책임자로서 활동하였다. 당재건과 공청재건을 위한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준비회를 책임비서 오성세의 이름을 따서 ‘오성세 그룹’이라 명명하였다. 공청준비회는 공청준비기관을 가리키는 용어이기에 사회주의 그룹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오성세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김경일, 위의 논문, 2001).

86) 제1고보 독서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一二고보생 7명 송국」, 『중앙일보』, 1932년 3월 25일)

87) 서울상해파는 1930년 9월부터 1931년 5월 검거까지 국내에서 당재건운동을 하였다.

88) 1932년 2월 26일 변우식을 포함한 4학년 학생들은 교련수업을 거부하며 교실을 박차고 나왔다(「第一高普又動搖 教練不受訓示不聽」, 『중앙일보』, 1932년 2월 28일). 아직 5학년 학생이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변우식 등은 여전히 4학년이다. 제1고보의 졸업식은 3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다(「市內各學校 卒業式時日」, 『조선일보』, 1932년 3월 2일).

89) 「第一高普又動搖 教練不受訓示不聽」, 『중앙일보』, 1932년 2월 28일; 아직 5학년 학생이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변우식 등은 여전히 4학년이다. 제1고보의 졸업식은 3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다(「市內各學校 卒業式時日」, 『조선일보』, 1932년 3월 2일).

90) 「京東警高秘第158號 朝鮮反帝同盟京城地方組織準備委員會事件檢舉二關スル件」, 1933년 3월 9일, 9쪽; 「京高特秘 第2410號 城大教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鮮內赤化工作事件 檢舉二關スル件」, 1934년 8월 31일, 『警察情報綴(昭和9年)』, 65쪽

91) 반제동맹에 和田獻仁, 조정래, 이재중, 변우식, 이단우 등 5명이 참여하였다. 이 조직은 조선에서 반제운동이 급무라는 점에 공감하며 결성되었다. 이 반제동맹은 이관술이 참여한 조선반제동맹 경성지방결성준비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변우식과 반제동맹을 결성한 조정래가 이순근, 이관술과 같은 해 11월 조선반제동맹 경성지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기 때문이다. 반제동맹 및 조선반제동맹 경성지방결성준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조(김경일, 앞의 논문, 1992, 201~209쪽; 박한용, 『일제강점기 조선 반제동맹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172~188쪽).

1933년 연초에 반제동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서<sup>92)</sup> 변우식은 1933년 7월 이재유를 만나 경성트로이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sup>93)</sup> 배재고보 편입에 성공한 그는 교내 맹휴를 제의하며 주도적으로 활동하였고, 학생부 트로이카로 남자중등학교 내 독서회를 조직·지도하였다.<sup>94)</sup>

다음 살펴볼 학생은 중앙고보생 장현진이다. 그가 활동한 독서회는 국제기관인 국제공산청년동맹(이하 김(KIM))과 관련이 있다. 김은 국내에 조선공산청년회를 재건할 목적으로 鄭泰玉 등을 파견하였다. 1932년 3월 입국한 정태옥은 韓最項에게 공청 학생부의 책임을 부여하였고, 한최옥은 중앙고보 학생들을 지도해 1932년 9월 교내에 독서회를 결성하였다.<sup>95)</sup> 정태옥이 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32년 9월 기준 정태옥그룹이 중앙고보에서 확보한 독서회원은 7명이었다.<sup>96)</sup> 이 중 장현진이 있었을 것이다.

김을 등에 업은 공청 재건그룹은 공청 재건의 기반이 될 독서회를 중앙고보에 조직하였다.<sup>97)</sup> 그런데 1932년 10월 하순경 정태옥이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공청 재건그룹의 구성원들은 발각의 위험을 느꼈다.<sup>98)</sup> 중앙고보 독서회는 1933년 1월 중순 2학년 그룹과 5학년 그룹으로 분리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였다. 장현진은 2학년 그룹에 속하였다.

모습을 숨겼던 독서회가 드러난 것은 1933년 2월이었다. 독서회는 학생들의 반전·반제의식을 자극할 반제격문을 준비해 1933년 2월 5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학교에 일본군의 만주 출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격문을 뿌렸다. 격문사건으로 4명의 동지가 재판받았고 독서회는 타격을 입었다.<sup>99)</sup> 그러나 학교에는 장현진을 포함한 남은 이들이 있었다.

중앙고보에 다시 새바람이 불었다. 1학기가 끝날 무렵 편입생 韓東正을 중심으로 중앙고보에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sup>100)</sup> 장현진은 한동정이 총책임자인 독서회에 참여하였다. 새로 결성된 독서회는 경성트로이카 휘하의 독서회였고 장현진은 경성트로이카와 연결되었다.

마지막 학생은 이경선이다. 동덕여고보를 다니던 그녀는 1932년 가을에 독서회를 가입하였다.<sup>101)</sup> 해당 독서회는 이화여고보에서 퇴학당해 동덕여고보로 편입했던 임순득이 참여한 모임이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동덕여고보 독서회는 반제동맹경성준비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경선을 비롯한 독서회원들은 이관술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자로 성장하였다.

92) 변우식과 이선우는 1932년 11월 하순부터 반제동맹과 연락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한다.

93) 이재유는 신문조서에서 7월 중앙고보교 뒷산에서 그를 만났다고 하였으나, 「이재유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1937년 4월 24일(김경일, 앞의 책, 2007, 379쪽), 예심조서에서는 9월 중순경 변우식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이재유예심조서(예심 제1회)」, 1937년 11월 17일(김경일, 위의 책, 2007, 425쪽)). 9월 하순경 학생부 트로이카가 모이는 것을 염두하면 7월부터 이재유와 접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94) 변우식은 경성공업학교에서 이범구를 조직원으로 획득하였다.

95) 김의 공청재건운동 및 정태옥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조(「刑控 第 530, 531號 (정태옥 등) 判決文」, 경성복심법원, 1937년 6월 30일; 신주백, 「1929-36년 공청재건운동의 전개 및 성격」,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419~423쪽).

96) 「정태옥의 사업보고(假題)」, 1932년 9월, 43~44쪽(신주백, 앞의 논문, 1995, 420쪽에서 재인용).

97) 중앙고보 독서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各種運動情況, 昭和 7年 下半年後の 重要事件 檢舉, 不穩檄文撒布 犯人檢舉」, 『昭和 9年 3月 治安情況』; 「刑公 第7, 8號 (권우성 등)判決文」, 경성지방법원, 1937년 7월 13일).

98) 학생부를 담당했던 한최옥은 정태옥이 검거된 이후 신변의 위험을 느껴 10월 말 다른 이에게 학생부문 활동을 넘겼다.

99) 2학년 권우성, 5학년 홍영유(洪泳裕), 이재남(李載南), 안치구(安致九)가 재판을 받았다. 안치구는 3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나머지 3명은 1년 6개월을 언도받았다(「反帝同盟事件 四名에判決」, 『동아일보』, 1933년 4월 13일).

100) 한동정은 1932년 4월 편입한 학생이었다. 해당 독서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京高特秘 第 442號ノ1 秘密結社中央高普反帝運動全校オルグ委員會事件檢舉二關スル件」, 1935년 5월 22일, 『警察狀報(昭和10年)』).

101) 동덕여고보 독서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京鍾警高秘 第1963號 同德女子高普生ヲ以テスル讀書會檢舉ノ件」, 1933년 2월 20일, 『思想ニ關スル情報(警察)(昭和8年)』).

이후 이관술의 검거로 취조를 받았으나 이경선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진학하였지만 운동전선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1933년 4월 이재유를 만났고 그녀는 경성트로이카 여자 학생부문을 책임지게 되었다.<sup>102)</sup> 이경선은 책임자로서 동덕여고보와 숙명여고보 학생들을 모아 독서회 결성을 지원했으며, 여공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활동도 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비밀결사가 관여한 교내 독서회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학생들을 살펴보았다. 변우식은 오성세 그룹, 장현진은 김에서 파견한 공청재건그룹, 이경선은 반제동맹경성준비위와 독서회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독서회가 발각·와해된 이후에도 사회주의 운동의 의지를 이어나갔고 경성트로이카로 모이게 되었다.

##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경성트로이카에 소속되었던 학생운동가들의 내력을 파악해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고 활동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과거 행적이 파악 가능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학생운동가가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들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들은 가족과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사회주의자였던 직계 가족이나 친지, 지인을 통해 학생운동가들은 사회주의 의식을 교육받았다. 또한, 학교에 결성된 독서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의식을 키웠다. 교내에 비밀리에 만들어진 독서회에서 학생들은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고, 맹휴를 일으키며 존재감을 보였다. 외부 사회주의 비밀결사와 연결 혹은 접촉이 계기가 되었다. 사회주의 비밀결사는 학생세력에 관심을 가지며 각 학교에 자신들과 연결된 독서회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몇몇 학생은 직접 사회주의 조직에 참여해 자신의 학교에 독서회 결성을 시도하였고, 또 다른 학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독서회 안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계기들은 일부의 사례에서 도출되었지만, 당대 다른 학생운동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경성트로이카로 합류하기 이전부터 학생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해오던 운동가들이었다. 그들은 독서회가 발각되거나 사회주의 비밀결사와 연락이 단절된 이후에도 사회주의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가 다시 사회주의 조직에 참여하였다. 퇴학당하고 나서도 사회주의 조직과 연이 닿으면 붙잡았다. 독립운동가가 고초를 겪듯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경찰에 검거 되었다. 평범한 학생으로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운동가의 삶을 선택하였다. 즉,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하고자 자발적·능동적으로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계속해서 사회주의 운동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사회주의 운동참여는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하려는 학생의 주체적인 의지와 학생세력과 연계하려던 사회주의자·사회주의 비밀결사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학생세력은 1930년대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료상의 한계로 학생부 성원들의 이력을 다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트로이카의 학생부뿐만 한정하여 노동·농업 분야에서 활동했던 이들까지 다루지 못한 과제를 남겼다. 추후 연구에서는 1930년대 학생들의 구체적인 활동상을 사회주의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면밀히 살핌으로서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재정리 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 농민층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자 한다.

102) 「이재유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1937년 4월 24일(김경일, 앞의 책, 2007, 378쪽).

●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중앙일보』

「京高秘 第8094號 ソウル系共産黨再建設計劃檢舉ノ件」, 1931년 9월 7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6年9月)』

「京西高秘 第4124號ノ6號 私立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盟休ニ關スル件」, 1931년 9월 7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6年9月)』

「京本警高秘 第6683號 反戰檄文犯人檢舉ニ關スル件」, 1931년 9월 30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6年9月)』

「城大學生ヲ中心トスル共産黨ヤチエーカ反帝部, 讀書會竝赤友會檢舉概況」, 1931년 11월, 『조선문제자료총서』 7

「京東警高秘 第3072號 倣新學校生徒ノ動搖ニ關スル件」, 1931년 12월 9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6年)』

「京鍾警高秘 第6068號ノ2 萬寶山事件ニ關スル檄文撒布關係者檢舉ノ件」, 1932년 6월 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7年)』

「京鍾警高秘 第1963號 同德女子高普生ヲ以テスル讀書會檢舉ノ件」, 1933년 2월 20일, 『思想ニ關スル情報(警察)(昭和8年)』

「京東警高秘第158號 朝鮮反帝同盟京城地方組織準備委員會事件檢舉ニ關スル件」, 1933년 3월 9일

「京鍾警高秘 第8476號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動搖ニ關スル件」, 1933년 7월 3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動搖ノ件」, 1933년 7월 5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京鍾警高秘 第8476號ノ2 同德女子高普校生徒ノ動搖ニ關スル件(續報)」, 1933년 7월 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京鍾警高秘 第8476號ノ6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動搖ニ關スル件(續報)」, 1933년 7월 12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京東警高秘 第3311號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ノ左翼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8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京東警高秘 第3316號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ノ左翼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3년 10월 11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8年)』

「京東警高秘 第215號 同德女高普ノ讀書會組織ニ關スル件」, 1934년 1월 2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9年)』

「京鍾警高秘 第1370號 私立商業學校生徒盟休事件ニ關スル件」, 1934년 2월 16일, 『思想ニ關スル情報(昭和9年)』

「各種運動情況, 昭和 7年 下半期後ニ於ケル重要事件 檢舉, 萬寶山事件ニ關スル檄文撒布犯人 檢舉事件ノ概要」, 『昭和 9年 3月 治安情況』

「京高特秘 第2410號 城大教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鮮內赤化工作事件 檢舉ニ關スル件」, 1934년 8월 31일

「京高特秘 第442號ノ1 秘密結社中央高普反帝運動全校オルグ委員會事件檢舉ニ關スル件」, 1935년 5월 22일, 『警察狀報(昭和10年)』

「京高特秘 第400號 朝鮮共産黨再建設京城準備グループ事件檢舉ノ件」, 1937년 2월 19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昭和12年)』

「京高特秘 第58號 秘密結社民族文學研究會等檢舉送局ニ關スル件」, 1940년 1월 11일, 『思想ニ關スル情報

(昭和15)』

「昭和11年 刑控 第438號 (이인행)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36년 11월 25일  
「刑控 第 530, 531號 (정태옥 등) 判決文」, 경성복심법원, 1937년 6월 30일  
「刑公 第7, 8號 (권우성 등)判決文」, 경성지방법원, 1937년 7월 13일  
「昭和14年 刑公 第2148號 (하명식 등)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40년 6월 28일  
「소화17년0제34호 (김재선 등)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43년 10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 국사편찬위원회, 2002년  
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8, 1993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김경일, 『이재유 나의시대 나의혁명』, 푸른역사, 2007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한용, 『일제강점기 조선 반제동맹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김경일, 「1930년대 전반기 서울의 반제 운동과 노동 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34, 한국사회사연구회, 1992  
박한용, 「경성제대 반제동맹 사건 연구」,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1991  
송태은, 「1929년 서울지역 학생시위운동에서 사회주의 학생비밀결사의 역할」, 『서울과 역사』 96, 서울역사편찬원, 2017  
신주백, 「1929-36년 공청재건운동의 전개 및 성격」,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이애숙, 「이재유그룹의 당재건운동(1933~36년)」,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이준식, 「광주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성격」,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장석흥, 「조선학생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 부록 - 경성트로이카 학생부 중등학교 학생 명단

남자 중등학교 책임자 : 최소복(崔小福) 이인행(李仁行) 변우식(邊雨植)	
여자 중등학교 책임자 : 이경선(李景仙)	
학교명	조직원
경성전기학교	최소복(崔小福) 임건호(任健鎬) 김만득(金萬得) 민병주(閔丙柱) 최병진(崔炳鎭) 박중환(朴鍾煥) 김상을(金相乙) 원종전(元鍾電) 김의호(金義浩) 유수남(劉守南)
보성고등 보통학교	장기륙(張基陸) 이상헌(李相軒) 김성곤(金成坤) 석명근(石命根) 오동훈(吳東勳) 오명수(吳命洙) 강민제(庚民濟) 김동원(金東元) 김인종(金仁綜) 신석인(辛錫仁) 이인택(李仁澤) 허정구(許鼎九) 김지석(金智碩) 김인근(金仁根) 황기수(黃基秀) *이인행(李仁行) <sup>103)</sup>
배재고등 보통학교	장병신(張炳旒) 이정희(李貞熙) 강순옥(姜淳玉) 이동(李棟) 유영경(柳榮京) 윤치병(尹致炳) 강순구(姜舜求) 김의식(金義植) 이갑환(李甲煥) 황기수(黃基守) 변우식(邊雨植)
중등학교	이순기(李順基) 이형식(李亨植) 한일우(韓一愚) 최재성(崔在成)
경신학교	장현근(張鉉近) 김응봉(金應鳳) 이재덕(李載德) 이종국(李鍾國) 김용잠(金龍岑)
양정고등 보통학교	안천수(安千洙) 김철수(金喆洙)
중앙고등 보통학교	한동정(韓東正) 장현진(張鉉進) 하명식(河明植) 전민수(田珉洙) 이건호(李建浩) 유인수(劉仁守) 김세환(金世煥) 김인석(金仁石) 국채의(鞠採毅)
진명여자 고등보통학교	이옥란(李玉蘭)
경성여자 상업학교	차소영(車小榮) 이분성(李粉星)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	신진순(申辰淳)
동덕여자 고등보통학교	김재선(金在善) 오일순(吳一順)
경성공업학교	이범구(李範九)
경성공립여자 고등보통학교	편청자(片淸子)
경성공립 농업학교	신해갑(辛海甲) 김양선(金良仙) 이기인(李基仁) 권혁도(權赫度) 원준식(元俊植) 우찬구(禹燦九) 이병득(李炳得) 강윤석(姜允錫) 김현욱(金顯旭)
경성여자 상업학교	임순득(任淳得)
양정고등 보통학교	김해조(金海祚)
보성고등 보통학교	이춘식(李春植) 이구원(李求源)
중등학교	조창식(曹昌植)
중앙고등 보통학교	윤병길(尹炳吉)

\* 각 학교의 명칭은 조선총독부학무국, 『朝鮮諸學教一覽(소화8년)』, 1934년을 참조  
\*색이 다른 부분은 경성트로이카의 남만희(南萬熙)가 관리했던 학생들

103) 계통도상에서 이인행은 트로이카 학생부 책임자로만 나오고 보성고보 조직원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토론문

오대록(독립기념관)

이 논문은 1930년대 전반기 국내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의 활동을 밝히고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규명하는 글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재유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했던 ‘경성트로이카 그룹(이재유 그룹)’에 참여함과 동시에 중심 인물로 조직을 이끌었던 학생세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1930년대 당재건운동 및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학생운동 세력은 ‘소극적’, 혹은 ‘수동적’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성트로이카 그룹’에 참여한 학생운동 세력 중 다수의 인물들에 대한 과거 행적, 활동 등을 면밀하게 추적·분석하여 사회주의자로서의 성장과정을 정리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운동 세력이 사회주의자로 성장하여 1930년대 국내 민족해방운동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끌었던 세력이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은 1930년대 사회주의운동사와 민족해방운동에서 학생운동 세력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논지와 서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토론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몇 가지 의문 사항과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1. 이른바 ‘경성트로이카 그룹’ 학생운동 세력의 특징 또는 성격은 무엇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경성트로이카 그룹’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인적·사회적 관계를 통해 참여 이유를 기술하셨지만, 모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발표자께서 머리말과 맺음말에 기술하신 것처럼 “학생운동 세력의 자발적·능동적 의지 및 주체적인 의지와 학생세력과 연계하려던 사회주의자 및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는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떠한 이유나 계기로 ‘경성트로이카 그룹’에 참여했고, 이들 세력의 성격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운동 세력은 왜 ‘경성트로이카 그룹’에 참여했나, 이들 세력의 성격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나. 혹은 ‘경성트로이카 그룹’이 어떠한 특징·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학생운동 세력이 이 ‘그룹’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반대로 ‘경성트로이카 그룹’의 학생부 조직 확대 차원에서의 참여와 성격이 도출된다면 논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2. 발표자께서는 머리말에 ‘경성트로이카 학생부’가 “경성지역 학교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었다”고 기술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운동 세력이 ‘경성트로이카 그룹’에 참여한 이유와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3. 1번, 2번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겨난 이유는 발표자가 머리말, 맺음말에 정리하신 논지에 대한 합리적 논증이 본문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문에는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고 이들의 인적·사회적 관계, 활동 사례 등이 정리·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과 분량을 하나로 논지로 정리하는 것 역시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개인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본문 2장 3장 4장의 나열식 서술을 몇 가지 특징으로 묶어 정리하여 논지의 일관성을 지향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만 압축,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부록 및 석사학위논문에서 정리하신 <표-3>을 적극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록과 <표-3>에서 분석하셨듯이 연령, 학력, 성비 혹은 출생지역 등을 활용하신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학생운동 세력의 성격 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용어 관련입니다. 논문의 주제 및 주요 기술에 '학생운동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용어설정과 관련되어 머리말과 본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대체로 '학생운동 세력' 등 다양한 용어가 있음에도 '학생운동가'라는 용어를 설정하고 사용하신 연유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용어 기술 관련입니다. '맹휴', '성대반제동맹'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최초 기재시 '동맹휴학' 등으로 전체 단어(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이름, 고유명사 등에 한글 한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문 최초 기재시 이름과 고유명사에 한자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논문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혹시라도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한자표기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8. 문장과 단어를 정제하고 다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논문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과 단어가 많이 서술되어 있어 논문을 읽어내고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발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메 모

---